朝鮮日報
夕刊
十六日(土)
本紙朝夕刊十二面

별표고무

近衛首相辭意全無
內閣强化方策을考究
補强工作으론專任厚相任命
鹽野法相首相會見談

近衛首相

【東京電話同盟】鹽野法相은 十五日午後二時四十分 荻窪別邸에 近衛首相을 訪問, 最近의 政局不安諸說에 對하야 內閣强化, 時局擔當의 具體策에 對하야 여러가지 意見交換을 行하고 首相의 決意를 鞭撻한後 同三時十分에 辭去하엿는데 會見後 鹽野法相은 如左히 말하엿다 總理는 時局打開方策에 對하야 非常히 眞劍한생각을갖고잇다 只今 그런 생각은 秋毫도업다 近衛首相에 對하야는 軍部政黨其他各方面에서도全面的으로支持하고잇스므로 어擧國一致의 輿望에應한 意味에서크게버틔고나가도록激勵하고왓다 그러함에는 爲先 專任厚相의 決定이 第一이며 總理도 그點에는 同感이다 候補者도 數人이잇는모양이나 候補는 色彩가 다른 野人이 選出될것이다 그時期는 木戶厚相이 歸任한後가될것이다 內閣强化의 問題에 對하야도 말하엿는데 總理도 그必要를 認定하는듯시프며 圓滑하게열어될것이다 七月의 豫算編成期에드러가게될 그때를 適當한 時期로본다 그러나 總理는 大端히 困難한 問題라고말하엿다 只今形便으로는 木戶文相이 西園寺公과 會見하고도라온後 漸次問題는 具體化되리라고몃는다 支那事變은 長期에 亘한 覺悟로써 解決에 當하지안흐면안되므로 遺憾업시 悠悠히 對處하여나가기를 바란다고하엿다 近衛首相의 病勢는 漸次快差가보이므로 來週末頃에는 나오게될것이다

프랑코軍大勝
赤色政權崩潰在邇
人民戰線軍南北二分

【사라곳사十五日發同盟】프랑코軍의 右翼部隊는 十五日비나로스占領에依하야 마침내 待望의 地中海岸에 프랑코軍旗를 飜揚하고『사라곳사』의總司令部를歡喜에 넘치게하고잇는바 一方『가르시아』『바리노』兩將軍指揮下의프랑코軍左翼中央兩部隊도 戰勝에빗나는『아라니다』右翼部隊와呼應하야 同部隊가確保한『비나로스』北方六十키로의戰線을壓迫에壓迫을加한바 人民戰線軍은 이때문에 後退를不得已하게되엿다 地中海岸에서의『프랑코』의 確乎한 地盤獲得에依하야 全혀孤立에陷한 바르세로나赤色政權의崩潰도 只今에目睫間에 迫到되엿다하엿다

【사라곳사十五日發同盟】連日의猛攻에依하야 마침내待望의地中海岸의要衝『비나로스』를占領한 프랑코軍은 여와同時에 비나로스南北으로부터『레베르카르로』及『알카나르』를占領하야 이에 프랑코軍은 北은『토르토사』南은『베니칼로』에 至하는 三十키로의 海岸地帶를 完全히 手中에 너헛다 따라서『바르셀로나』『발렌사』의 通路는 勿論 電信連絡에 至하기까지 프랑코軍에 依하야 完全히 遮斷되여 海上交通以外는 連絡不能에 陷한地中海上도 優勢한 프랑코軍艦隊때문에 行動의自由를 빼앗끼게되여 人民戰線軍의 領域은 이에全혀南北二分의 悲運에 빠저『카탈로니아』는 全然孤立에 陷하엿다

殘敵蠢動
三州山系의北側

【上海十五日發同盟】廣德北方에 侵入한敗殘師의 敵에對한 包圍殲滅戰은 三月中旬부터 開始하야 同下旬으로써 一段落을지엇다 그러고 미처逃亡치못한 殘敵이 廣德東北方四키로의 三州山系의北側에잇는 張渚鎭北方에서 蠢動을繼續하고잇스므로 廣森部隊는 四月三日頃부터 行動을이르키고田上部隊는 三日九里灣西方에서 約一千의敵과衝突 이것을潰走케한後 다시서로 呼應하야同部隊의一部는 同日 西山塢西方에서 約千八百의 敵에對하야 徹底的打擊을 주엇다 또廣森部隊의 一部는 四日 白沙鎭方面으로 進擊을 開始 同管里北方에서 數百의 敵을 急襲하야 이것을 南方으로 潰走케하고 一方 石井 田上兩部隊는四日夜부터 張渚鎭 唐官村方面으로 大迂回하야 敵을 가까히 誘引하는 作戰行動을 取하엿는바 敵은 마침내 我의術策에빠저 我의 攻擊에 五百의死體를 遺棄하고 約一千의殘敵은 張渚鎭東南方 大靑山方面으로 潰走하여엿다 그後 廣森、石井、田上各部隊는 包圍網을 縮少하면서 大靑山方面을 向하야 猛烈한 掃蕩戰을 展開하고잇다

肅淸工作擴大
蘇聯外交界大恐怖

【某處着情報】外務次官『크레스틴스키』元駐英大使『카라한』을 비롯하야 外交界의 巨物多數를 犧牲시킨 蘇聯의 肅淸工作은 언제 停止할는지 豫測할수업는形便일뿐만 아니라 더욱擴大될模樣여서 對外 外交官中에는 露國을 拒否하는者가 續出하고잇다 近日當地에서 接手한 情報에 依하면 지난번에 駐羅馬尼公使가 伊太利에逃亡하야『천세이순』을 이르키엇이 잇는데 三月中旬에는 西班牙『라라곤』駐在『코간』總領事가 歸國命令을 밧고 自殺을 하여버렷고 이번에는 지난八日에 任地勃牙利를 出發하야『월소』經由로 歸國할 豫定으로 出發한『라스코리니코프』公使及武官『스우울코프』兩夫妻가 道中에서 失踪하야 行衛不明事件이 勃發하엿다『깨·페·운』가 出發한뒤 公使館을 調査한 結果 歸國할 意思가 업섯슴이 判明되엿고 또『스우울코프』는 重要軍事機密書類를 携行하고 엇섯스므로 同武官에 對하야 逮捕命令을 發하엿다한다

事變下에迎하는 天長節奉祝式
特히國民의覺悟徹底를企圖코저
十八日各道知事에通牒

事變下에 迎하는 天長佳節은 聖壽의 無窮을 삭가 빌며 皇室의 御隆昌을 欽仰奉讚하고 共히 忠君愛國의 念을 새롭게하야 擧國一致, 堅忍持久, 時艱克服으로써 皇運扶翼을 奉하야 國威를 中外에 宣揚하는 國民의 覺悟를 굿게할 機會이다 左의 要項에 依하야 天長節奉祝을 行하기로되어 總督府에서는 十八日 大野政務總監으로부터 總督府 各局長 官房 部課長及 各道知事에게 通牒을 發하기로 되엿다

一、官廳學校等에서 奉祝式을 行함에當하야는 特히 右趣旨의 徹底를 圖하도록 努力할것

二、府邑面에서는 神社、神祠、學校、公會堂 其他適當한 場所에서 祝賀의 方法을 講究하야 民衆에게 右趣旨의 徹底를 圖할것

三、當日午前八時를『天長節奉祝時間』으로 定하야 前各號의 式典에 參列치안는 一般國民은 各家庭其他各場所에서 宮城遙拜를 行할것 이時刻에는 汽笛, 사이렌, 鐘等을使用하야 適當히周知方法을講究할것

隊伍離脫者死刑
敗戰責任으로宋도死刑?

【某處着情報】얼마전에는 元山東省主席韓復榘가 敗戰의 責任으로 處刑되엿는데 이번에는 또宋哲元도 同樣의 運命을 밟게되엿다고 傳해지고잇다 國民政府軍事委員에서는 最近『各級長官離隊伍懲治辦法』이라는 布告를 다음과가티 發하야 敗戰의 責任을 追窮하기에 汲汲하고잇다

一、軍隊의 退却에際하야 師長以下 各隊長은 確實히部下를 掌握하고 만약 함부로 隊伍를 떠나는者는 死刑에處함

二、軍長以上의 各司令官은退却에際하야서도 適當한 部署에 就할事 너무速히隊伍를 떠나서 統制가不能하게한者는 懲戒處分에附함

英政府, 米國에 飛行機千臺註文?
AP通信社報道

【華盛頓十五日發同盟】最近英政府는 空軍充實을爲하야 米國軍用機五百台의 註文을 發하엿다는 報道가傳하야 興味를끌음던바 十五日 AP華盛頓支局은右報道보다도 더크게 英政府는米國으로부터 約一千台의 軍用機를購入할計劃을 갓고잇다는 旨를 如左히 報道하엿다

英政府는 速히 空軍充實計劃을 遂行하기爲하야 米國으로부터 約 一千台의 軍用機를 購入하려고 計劃하고잇다 그中 大部는 中距離 快速爆擊機다 空軍專門家의 見解에 依하면 英國은 그地理的相違로 米國서 使用하는 長距離爆擊機를 不必要하므로 英國으로부터 爆擊機의 大量註文이 잇다하드래도 米國陸海軍의 空軍充實計畫이 그때문에 遲延될과가는일은 업다 다만 軍用機의 機密에 關하는部分은 輸出에 際하야 陸海軍當局의 許可를 必要하는點이 問題로될뿐이다

滿洲國嚴重抗議
佛守備隊滿領越境으로

【山海關十五日發同盟】佛國守備隊의 滿洲國領土不法占據에 關하야 山海關國境警察署는 十四日午後三時 佛國守備隊로 크로젤守備隊長을 訪問

一、速히 自發的으로 現狀回復을 實施할것

一、如斯한不法行爲는 當署에서 斷然默認키不能함

一、佛國側에서 自發的撤去를안할時는 我方에서 이를實施할 여경우에잇서 發生하리라豫想되는 紛爭의責任은 佛國側에 잇슴

이라는 嚴重抗議를 提出하엿다 이에對하야 크론젤隊長은『佛國守備隊의 行動은 모도天津駐屯軍司令官의命에 依하야 行한것으로 自己單獨으로는 確答할수업는바 司令官의 來着을 기다려주기바란다』하고 回答을 延期하엿다 佛國側과의 交涉은 十五日夕刻부터 再開되엿스나 滿洲國當局은 旣定方針을 堅持하고 相對側의 態度를 監視中이다

岡田氏受諾

【東京電話同盟】傷兵保護院副總裁는 現長崎縣知事岡田文秀氏를 起用하기로 決定하야 岡田知事는 十五日午前十一時三十分內相官邸에서 末次內相과 會見受諾하엿다

八面鋒

◇英伊間에 新協定成立。佛伊間에도 英國斡旋으로 會商說。

◇獨伊樞軸을 分離시키자는 英國의 老獪한 手段。

◇그통에 헤디오고아는 새우등이 부러지는 판。

◇米國서는 日本이 戰艦을新造한다고 五萬噸級 戰艦을 二隻이나 建造하고 巡洋艦도 超弩級으로 建造하리라고。

◇누구나 남의 注目을 밧는 일을 할때엔 責任을 他人에게 轉嫁시겨어 體通。

◇伊太利는 佛國을、佛國은 獨逸을、獨逸은 蘇聯을、英國은 伊太利를 핑계。

◇誰知烏知雌雄이려오。

◇都市對抗蹴球戰 어듸부터 本格的 白兵戰。

◇젊은 健兒들의 龍攘虎搏, 보는사람들로하야금 주먹을 불근 쥐게하는군。

◇싸와라 뛰라 제都市의 名譽와 勝利를 爲하야。

少年朝鮮日報今日發行

壯烈無比의空中戰
敵機十五臺를擊墜!
天河、白雲、從化三飛行場爆擊
我方서도二機犧牲

【上海十六日發同盟】艦隊報道部十六日午前十一時發表=十三日我航空隊는 廣東方面에서 天河、白雲、從化飛行場을 爆擊하야 이날 日支事變以來 最初의 그로스터·우라제러機와의 交戰이엇섯다 卽 我方의 二十餘機에對하야 敵도 그로스터·우라제러機二十數機로써 交戰 壯烈無比한 空中戰鬪를한後 確實히 그中十五機를 擊墜하엿다 그他의 敵은 我의 旺盛한 戰鬪에 脅怖로 逃走하엿다 我方의 二機도 本戰鬪의 犧牲이되엿다 前記 그로스터機는 最高速力四一五의 上昇力極히 큰것으로 機銃四機를가진 極히 優勢한 戰鬪機이엇스나 今次 空中戰鬪에잇서서 帝國海軍의 航空機와 比較하야 劣力한것을보엿다 이것은 勿論 主로 旺盛한 戰鬪精神과 練磨에依한 卓拔한技術에 基因한것으로 또한 我의 器材가良好하야 空中戰鬪에 適性함에因한것이다 今次攻擊에잇서서 天河飛行場格納庫一棟爆破 從化飛行場의 附屬倉庫三棟을 爆擊炎上케하고 各飛行場의 滑走路를 爆破하엿다

二十六日
官公署休務

今次事變에잇서서名譽의 戰死를한 將兵의 靈을合祀하는 靖國神社臨時大祭 當日二十六日은休暇로하는旨의 內閣吩咐가 게시엇시어 此旨가內閣으로부터 告示되엇스므로 總督府에서는 十六日 各管下官公署에對하야 二十六日을 休暇로하는旨의 通牒을發하엿다 따라서 同日은 府內의 官公署 學校等은休業케될것이다

十倍의敵을擊退

【鮮華十六日發同盟】十五日午前十一時頃 定遠에잇는 ○○工兵隊三十名은 十字鋪(定遠東方七키로)에서 敵三百과遭遇 激戰三時間만에 約十倍의敵을 擊退하엿다 또小田○○部隊는 同日午前十時頃廣武附近의 朱龍橋北方 七키로의 地點에서 三百의敵과 交戰 이것을 東方으로 擊退하고 다시 馬還 小團武營에서 敵五百의逆襲을 바더 激戰三時間만에 이것을 潰走케하엿다 敵의遺棄死體는 多數 我方의 損害는 負傷二名뿐이엿다

獨總統訪伊前에
佛國首相羅馬訪問

【巴里十五日發同盟】英伊調整交涉의 成功에 刺戟되야 佛國政府도 英國政府의 調停에 基하야 佛伊交涉을開始할 意向인바 달라디에首相은 來五月三日 히틀러總統이 羅馬를 訪問하기以前에 交涉을 開始하기로 決定하엿다고 한다 佛國政府에서는『뭇솔리니首相은 獨墺合邦을承認하고 歡迎하고잇지는안타』는 見解가 有力한데다가 그우에 英伊交涉의 成功은 佛伊交涉開始의 時機가成熟되어 往年의英佛伊三國協定과 마찬가지로 英佛伊三國의關係를改善할 可能性이엇다고 보고잇는모양으로 佛國政府는 新駐伊大使의人選을 기다려伊太利政府에다 協定案을提示할 計劃이다 [illegible]

佛軍當局無回答으로
外務局斷乎手段講究

【新京十六日發同盟】山海關에서의 佛國守備隊의不法越境事件에 對한 滿洲國三個條의要求를 中心으로行하고잇는 國境警察署及佛國軍當局團과의 外交交涉에 對하야는 回答期限인 十五日午後五時에이르러도 何等報告를받지못하고 그態度를注目하고잇는 外務局으로서는 現地에서 嚴重旣定方針을堅持하야 佛國側을 監視하는同時에 十六日政府當局은 다시斷乎한手段을講究키로되엿다

時事解說
二重價格制

[illegible]

本社參觀

[illegible]

人事·集會

[illegible]

明日に備へよ！

今日의保險은 明日의힘

時代는 戰時體制에 移行되고 國民은 擧國一致非常한 覺悟와 準備가 要求되고잇습니다 이러한時代에 生命保險이야말로 가장必要한 經濟的準備의 根幹이되는세엽니다

帝國生命은──
明治卅一年의 創業以來 玆에五十年間 恒常堅實한 大會社로 諸位의 信賴를 獨占하고잇습니다

帝國生命은──
昨年度도 躍進을繼續하야 左記의 業蹟을나타내여 期待에相副됨을 엇고엇습니다

昨年度業績
新契約 三億九百四十餘萬圓
純增加 二億二千三百六十餘萬圓
年末現在高 十六億百四十餘萬圓
總資産 三億九百四十萬餘圓
加入者利益配當積立金 三千七百六十餘萬圓
創業以來支拂保險金總額 一億五千九百八十餘萬圓

創業滿五十年
帝國生命
支店(東京·大阪·名古屋·京都·神戶·橫濱·福岡·札幌·廣島)
支部(仙臺·金澤·高松·秋田·熊本·函館·臺北·京城·大連)
·新京支店新設
(營業案內·決算概況贈呈)
H—8 (滿國省工商)

イカリソース
日本ソースの草分

本社主催 第一回

全朝鮮都市對抗蹴球大會 第二日

본사주최 제일회전조선 도시대항 축구대회 제일일은 조선 "스포-츠" 사상에 잇서 전에업든 큰 인끼를 끄으며 장관 또 성황을 이루엇거니와 제이일인 오날도 전날보담 몃갑절의 관중이 정각전부터 쏠려드러 넘으나 넘은 "스탠드"를 메이고도 오히려 남음이 잇섯다 그리하야 장안의 이날인끼는 완통 이대회로 몰린 느김을 이르켯다

大觀衆熱技에魅了 萬雷齊射·球場을撼動

遠來의光州二回戰에惜敗

一合又一合! 競技는高調

도시대항축구제이일 십육일날세는 전날가튼바람도업시 안온하게개이고 볏도따뜻하야 마치대회를위해서는 가장축복된일기이다 전날의 깨임에서 한층대평양의 격전을의식하야 세차례에 버려진 차흥에 가슴이시원하도록 장쾌한 접전을구경하시전 개한대회의 인끼는 이날 날세도 조커니와 겸한 토요일의 반공일휴라서 관중은 학생차이며 일반시민이며 부인네들까지 뒤를이어 입장하야 개전전에이미전일이상으로 남쪽파 북쪽스탠드는 사람의성을싸엇다 전남의 첫차옴에 각히일등한 진남포(鎭南浦)평양(平壤)청진(淸津)등 각군은 하로밤 유유히피로를풀고 전일에 승한기개로 접전에임하야 먼저령시사십분전남 광주(光州)대진남포군의 대진으로 만장한응원리에개전 광주군은전고투하엿스나 세록리하야 유대령으로 패하고 이어서 두시십분경 경기광주(廣州)대평양의 차흥이열리어 광주는 경기의 근거리의 퇴이만큼 응원도성대한 가운데 맹렬한 접전이 전개되여 회장은 이때부터 일층진상하야 박수갈채가뒤를이어이러낫다

鎭南浦6 光州0

【前3……0、後3……0】

【第一次戰】鎭南浦對光州軍의第二回戰은 同日午後零時三十九分부터 金龍夫(主審)崔永錫、崔年爵(線審)三氏審判下에 鎭南浦 [illegible]

◇前半 [illegible] 鎭南浦軍 [illegible] 光州軍 [illegible] 하엿다

◇後半 十四分에 鎭南浦FW線은 [illegible] 巧妙한 패스로 [illegible] 一點을 加하엿다 [illegible] 二十二分에 또다시 光州의FB HB兩線의 [illegible] 鎭南浦의 韓君의 强蹴은 또다시 [illegible]

	光州			鎭南浦		
	前	後	計	前	後	計
門擊	3	6	9	9	5	14
直擊	0	0	0	1	3	4
自由	5	0	5	3	2	5
自殺	0	0	0	0	1	1

寫眞說明 우로부터 스텐드를 채운관중과 원내는 진남포군과 광주군의 열전 스코어뽈드 아래달린 관중

河豚中毒二百五五名 冷麵中毒五百名

鰒魚死亡79名冷麵死亡3名

昨年全朝鮮飮食物中毒統計

총독부위생과조사에의하면 소화십이년중 조선에서 음식국약물을 잘못먹고 중독된이가 상당히 만흔데 중독환자의 총수를 보면남자오천오백구십사명 여자삼천구백칠십명이나된다 그중에서 사망한사람이 남자삼백사십명 여자삼백이명으로 총 사망자는 [illegible] 그중 제일만코 죽은이가 [illegible] 명이나된다 그다음은 식물류(植物類)의중독환자인데 [illegible] 명이 사망하엿다 그다음은 생선(魚介類)중독환자로 [illegible] 그중수가만흔데 복어(鰒)를 먹고 중독된환자이백오십오명중 칠십구명이 사망하엿고 이중에는「복어」를먹고 자살한사람이 남녀각각 두명이 잇다 또조선랭면을먹고 중독된 환자가오백명이나되고 세명이사망하여 일반의주의를끌고 잇다

大阪商工會議所 聯合訪問團來京

【釜山電話】 대판상공회의소의 연합회의소의 대판부와 대판시 [illegible] 십오일밤에는 경성 [illegible]

詐欺當코 飮毒自殺

십오일오후 열한시반쯤 부내신설정(新設町)사번지삼호 조선약국(朝鮮藥局)점원 이희영(李熙榮)(二二)이가 다량의「스트링·키니-네」를 먹고 고민하는것을 동거인 홍수봉(洪壽奉)이가 발견하고 부민병원(府民病院)에 다려고가서 응급치료를하엿스나 십육일오전 두시반쯤죽고 말엇다 그가자살한원인은 약일주일전 어떤사람에게 돈지불을당하고 이백원가량구어 켯것는데 십사일 사기당한것을알고 번민하든끄테 음독한것이라고한다

五十圓獻金

리리(裡里)에서 근무하고잇는 조선인철도국원으로써조직된 청우회(淸友會)대표자 박갑재(朴甲載)씨는 십오일에 철도국에 올라와서 적원(狄原)서무과장을 차저보고 위령제(慰靈祭)거라 국우전사자(局友戰死者)를 위하야 써달라하고 돈 오십원을 바치서 길전(吉田)국장은 감격하고잇다한다 평양(平壤)의 간부대를 위문하기로되엿다

列車에少年轢傷

【鐵道局發電】십오일오후네시반에 평양전교리에서 선교리 신명(新明)소학교삼년생 로풍렬(盧豊烈)(十)이라는 아이는 화물차의아롱가로 건느려다가 부다치여 머리와 얼굴에중상을입엇는데생명이위태하다한다

업바지

십오일 오후열시쯤 부내 명륜정(明倫町)이정목 이십일번지 십오호 리륜희(李倫熙)집 대문안에 생후이십일가량되는 조선여아를 버린사람이잇나는데 생활난으로 기를수가업서 버린것갓다고한다

天地變異

甲山에積雪二尺 長津新興엔寸餘!

【咸南支社發】 남북각지에서 [illegible] 눈으로 변하야 [illegible] 쪽소식을 전하고잇는 이때 갑작이나 백설이 분분이 괴상하게도 북도에는 [illegible] 나려 약한치가량 쌔엿다고 [illegible] 가 만발하야 일반의 기억을 늘고 잇다 지난 십사일 오전열시부터 [illegible] 대에는 비가나리고 잇든바 장진군(長津)과 신흥군동상면(新興郡東上面) [illegible] 오후두시쯤부터 눈이 [illegible] 두리(甲山郡[illegible]面鳳頭里)지 [illegible]

都市對抗蹴球大會割引券

時日 四月十六、十七、十八日
場所 京城運動場
五十錢을三十錢으로 (一人一枚)

天氣豫報

槪況 優勢한低氣壓은 千島附近에잇고 黃海附近에도弱한低氣壓이잇다 低氣壓은 南海諸島及黃海方面에파저잇서 南朝鮮及內地中部는 개이고東北地方以北은 日氣가조치못하다

豫報 今夜는 개엿다흐렷다하다 明日은晴

昨日最高 十三度六
同最低 六度
今朝最低 五度一
今日正午 九度三

觀測所擴張

三個所를또設置 鬱陵島、咸興、光州에

조선의기상관측(氣象觀測)기관은그시설이 극히부족되여 항해(航海)와항공(航空)에 막대한지장이잇서 이량대교통기관의 발전을저지하고잇는 상태이므로 총독부에서는 금년부터 기상관측기관의대확장을 단행하는동시에 명년도에 오직하나밝인 총독부인천관측소(仁川觀測所)를 경성으로 이전하기로되엿다 이와가티 금년부터 기상관측기관의대확장 단행하는 제일차의시설로서 총독부에서는 오는칠월에울릉도(鬱陵島)에 총독부관측소지소(支所)를 신설하고 또다시 [illegible] 함흥(咸興)광주(光州)당처에 시종관측소지소를 신설하기로 결정되엿다 그리하야 현재 울산(蔚山)、추풍령(秋風嶺)、청진(淸津)、신막(新幕)등 네곳에잇는지소를 합하야 전부칠개소에 달하게되엿다

經學院關係者 南總督이招待

남총독(南總督)은 문묘춘기석전제(文廟春季釋奠祭)를 당하야 십오일오후세시부터 왜성대관저(倭城臺官邸)에 경학원부제학유진찬(兪鎭贊)씨이하 동원관계자삼십여명을 초대하고 대야정무총감(大野政務總監)、염원학무국장이하 학무국관계자도 배석시킨후『다화회』를열어 동양문화의 부흥을 회제로 여러가지 환담을하엿다

金剛山協會 評議員會

재단법인 금강산협회에서는십오일 오후 한시에 총독부회의실에서 평의원회(評議員會)를개최하고 십이년도의 사업및 결산보고와 십삼년도의 예산에대하야 토의하엿다

延專四年生…

疑問의飮毒自殺

早失父母後異腹兄집에寓居中 秀才로서省齋育英會의給費生

모자세사람의 비참한 자살사건이아직 기억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이번에는 내년봄이면 졸업할 수재의전문학교 생도의자살사건이 버러저 [illegible] 이봄을 다시금 우울케하고잇다 십오일밤 열두시쯤되여 부내가회정(嘉會町)일번지의집 김정명(金鼎鳴)의집에잇는 그의시동생 부내연희전문학교문과 사회년생 [illegible] 군의 방문을 외출하엿다가도라온 그의동생 [illegible] 이 열려잇고 [illegible] 대답이업스므로 이상하야 [illegible] 천만의외에도 그의형은 [illegible] 목을 매고늘어저 [illegible] 살로 판명되엿스며 원인에대하야서는 유서가 [illegible] 알수업스나 [illegible] 파한것인듯하다고한다 [illegible] 는 강원도회양(淮陽)군수를 지낸 [illegible] 씨의서자로어려서 일즉부모를여의고 [illegible] 스나그형조차 소화칠년사월에죽은뒤로는 형수되는전기김여사가 와생기숙을하며 넉넉지못한 생활속에서 두동생과함께 길리어 [illegible]

城大理工學部 十八日授業開始

當局에서正式으로發表

경성제국대학(城大)에 금년도부터 이공학부(理工學部)를신설하기로되엿다함은 [illegible] 저간총독부에서는 [illegible] 문부성(文部省)에 [illegible] 제반수속을 추진하야 [illegible] 지난 십사일각의(閣議)에서 결정한후 십육일 [illegible] 발표된 [illegible] 정식으로 발표하엿다 그리하야 [illegible] 수업을개시하게 [illegible]

人夫흥사橫領犯 市內潛伏中被捉

십사일오후여섯시반부터 여덟시사이에 수원군성호면오산리(水原郡城湖面烏山里)에 사무소를두고 대전、수원간철도복선공사를 하고잇든 내전조(內田組)에서 인부임금을 [illegible] 횡령한 범인에대하야서는 소관수원서는 물론 범인이 경성시내에 잠복한 형적이잇다는 수배에의하야 경기도형사과에서 맹렬한 수사를 한결과 십오일밤열한시드디여 종로서정복 [illegible] 만주로 고비원주하려는 범인을 체포하야 십육일아츰수원서원에게 넘겻다 그는평북영변군영변면 동부동 김형선(金亨善)의 맏아들로 내전조에서는 조랑조수로 잇섯스며 [illegible] 인부임금으로 대금을 가저오든것을 보고탐내여서 [illegible] 버렷다 [illegible] 안동(安東)에서도 [illegible] 고한다

今夜의라디오

第二放送▲午後六時 리디오노리▲六時二五分 [illegible]▲七時二〇分 講演 安東赫▲八時 레코-드演奏▲八時二〇分 京鄕歌謠 李蘭影 金玉葉▲八時四五分 大笒獨奏 朴鍾基▲九時 野談 金龍星

第一放送 ▲午後六時二五分 歌謠▲七時二〇分(東) 講演▲七時四〇分(東) 講演▲八時 時物語

色鉛筆

옷치레는 의례히 옷을입는것이 원측이어서 대체 어떠한옷을어떠케 입어야 치레가 잘되느냐 하는것이치레의 요점인모양인데 ▲겨울에는 입고 또 입고 비단에 털에가 죽에입을수잇다는것은 한겻 다도 되엿스나 ▲따뜻한 봄철마지하니 겨울옷을벗고 가벼운봄옷을 입는다는것은 물론리치가 당연하지만▲보아하니 봄꼿으로 가리입는다는 봄치장에는옷을입는다는 치장이라기보다 옷을 벗는치장의 경향이 근래더욱 현저하다▲예를들자면 못지안허도 신녀성의 속옷 가지가 해마다 열버가고 양말이란것이 속살이 훤하게보이는것을 신고 다니는등여름이야 더말할것업다 고해도▲소위양장이라고 지금부터 억개와팔을살까지 들어내노코『날좀보소』하면어쩌나!

國産界의 最高權威 品質優良 價格底廉
エロフロートに優るセウカフロート
ザンセート各種
パインオイル類
選鑛劑一式
選鑛油及試藥은
各種選鑛油 在庫豊富
京城鍾路一丁目 家任ビル三階 電話光化門二一二九番
昭和化學油脂工業株式會社

우수한치림약 리베-루
염려말고 꼭한번 시용하십시오
大阪市東區高麗橋 竹村製劑所
全國藥店에잇슴

補血·强壯·强精·特効劑
판토크린 (花鹿茸精血)
百花爛漫한봄철에는 補藥도착 花鹿茸精血(판토크린)을먹어야한다 花鹿茸精血을 먹지안코는 天下에 補藥이잇다고 말하지못할것이다、効力의 絶對한것도 絶對한것이어니와 百藥이 [illegible] 하는 이때에 [illegible] 그대로 [illegible] 하게 提供하는것은 오직 이것뿐이다
京城·[illegible] 發賣元 共生藥業株式會社 電話光化門局二五四七番 振替京城二二〇〇二番
定價 內服液 30cc入 ¥7.50 注射液 10cc入 ¥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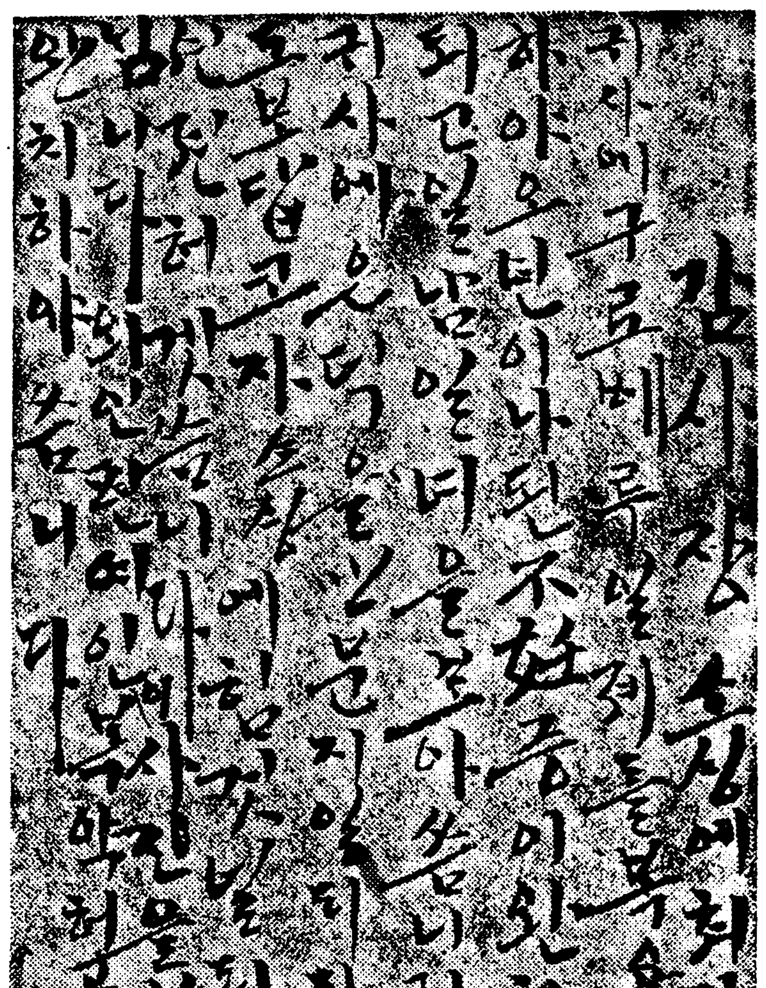
田中絹代 自轉車に乗ってデビュー
十八日ヨリ封切
南十字星 同時上映
明治座

齒刷子・トウランプ
銃後의責務
外國에金을보내서는 今日의日本으로는 아무것도안될일
羊毛도綿도 스·프混用의時代다
國産品愛用이야말로 國民의義務이다
優良國産齒刷
最新春季特賣中 景品付
トウランプ 連鎖店
齒刷子 トウランプ・齒石 トウランプ

最高級

림질 대하증엔 구로벨이 제일

快報! 强力治淋新劑



남녀림질대하증냉병이 당장에

신성당구로벨은천하의명약 오륙년이나아이울못낫든부인 이구로벨, 단한제로일남일녀를나엇다며기쁨으로이감사장과사진을보냇다 구로벨은남녀림질과대하증냉병에만신효할뿐아니라수십년된불임증(아이못낫는병)도나어옥동자를낫는것이확실히증명되엿다

健康報國 (건강보국)

惡疾全滅 (악질전멸)

비참!! (悲慘)

림균이눈에드러가면이십사시간내에눈이멀게된다림질대중하으로 잘못하면장님이된다

◇엇지하여야 낫겟다는자신을 가저야한다

◎림질의원인

림질은 고노곡겡이라는 림질균을가진남녀의 성교(性交)로인하야 그균이생식기로드러가서 전염번식하야생기는병이오 ◉림균은엇더한것인가? 림균은 다른병균보다 특히강렬(强烈)하야 뿌리가(淋絲)성하게뻐처서점점번식 하는,성질을 가젓슴으로 날이갈사록 신체내부로기피드러간다 그러므로 방광염,고환염(睾丸炎)『산중』섭호선염, 자궁내막염,나팔관염,란소염,요도협착,등 증세를 이르키며 골수에까지 뚤코드러가서 관절염이 생기고 모든 고통을 주는것이다

급성림질과 만성림질

급성은오좀눌때몹시아프다 림균이 침입하야 오좀나오는길(요도)에서번식하면염증을이르키어, 헌데가나는고로오좀눌때몹시아프고 흑피도나온다 만성은아프지는아니하나고름이난다 급성림질이몃칠지나면 림균이점점기피드러감으로헌데는 일시아무나언제든지고름이나며 별별증세가병발한다 잘못하면 생명을일는다!특히요도협착(尿道狹窄)가튼증세는 참위험하다 오좀길이꼭막혀바리는 증세다도회지에서는급히의사의 수술을바더일시오좀길을 뚤키나할수잇거니와의사가속히오지못하면 오좀통이러저서생명을 일는일이종종잇다 참위험하다만성림질이되면 그다지아프지는아니하고내버려두다가 별안간이런중세로변하면 그야말로후회막급이다 항차병독을자손에게까지 끼치게하야죄업는후생에까지적악(積惡)을함에 이르나니참두려운일이다

고름은엇지하야 나는것인가?

사람의신체내에 병균이 드러가면혈액(血液)중에잇는 백혈구(白血球)가 그병균을 막어업새기위하야맹렬한싸홈을하는것인데 만일그균이강하면백혈구가도리혀 죽게되나니이죽은백혈구(白血球)가 곳고름이다이와갓치신체속에는 균을막어업새는힘이잇슴으로 조곰만 그힘을도아주면당연히병균을 죽일수잇다

◉병리가(病理)판명되여 화술적치료원리가발견되엿다 림질의원인과중세가확실히판명되자세계적으로 치료게권위대박사의의견이일치되엿스며 따라서그치료원리가발견되엿다。

림질치료원리

【일】 림균은뿌리가 깁히백히는성질을가젓슴으로 내부로부터 그뿌리를업새지아니하면 거근되지아니한다

【이】 백혈구의 힘을도읍고 살균될약제가 들어가면 균이 깁이 못드러가게 막을뿐아니라 전부몰사하야 바린다

【삼】 약이위장으로흡수되여신체각부를거처혈관으로 도라방광(오좀과갓치)을통하야 요도에까지 이르면병균을 완전히전멸식힌다(殺菌殺菌)흡수되지아니한약은염증을다 스리지못하며도리혀연약한 점막(粘膜)을상하게한다。

【사】 국부에넛는 약을쓰면병이 그약을피하야 점점속으로 드러갈 뿐임으로 위험천만이다。

【오】 외치로세척,주입약(注入藥) 삽입약을사용하면깁이잇는 균을죽이기커냥약의, 부작용으로 병처가더옥더아파서견댈수업고 더욱림균을점점깁이 밀어너어 더욱위험하다 또남부끄럽게벌니고녀야하니쓰기가 제일불편하다 하물며 깁히백힌병균의 뿌리는결코 전멸되지아니함으로 다시재발되고 또한 그병균은 더욱강하게되여 별별악성완고증으로 변하게된다 뿌리가업서지지아니하면 다시새싹이나오는것은 보통초목과 조곰도 다름이업다

【륙】 반다시 내복약이라야 완치된다 약이유기적 생리작용으로 신체내부로 흡수되여방광요도 심부속에드러백힌 림질균의 뿌리를말여 죽여야한다 흡수된약은 혈액중의백혈구(白血球)와합력하야 천하무적(天下無敵)의 강병이되여 아모리완고한악성림균이라도 씨도남지아니하고 전멸식힘으로 다시는 후환이업게된다 이와가치확실한 화설원리와 실지경험을토대로하야 수십년 고심연구한 결과최리상적 합리적 명약이 발견되엿다 세계적으로 칭찬을밧고잇는 림질최특효 최특등고명한 책임제「구로벨」이이것이다

구로벨의 특효한특장은

(一)내복약인것 내복약이라야만속에드러백인림균을 전멸식힌다

(二) 약효가급속한것 합리적내복약임으로 그효력이지극히급속하다림질은 속히 고치지아니하면 조섭하기에 곤난하야 완치하기어렵다 단도즉입적으로 그뿌리를 속히잘러업샘으로 몃칠안되여 전멸하여버린다일주일이내

(三) 살균력이강렬한것 구로벨은 오십만배의물에 타도 이분간에 림균이즉사한다

(四) 절대로위장을 해하거나 부작용이업다 내복약은 위장을 상할염려가잇으나구로벨은이염려를완전히업게한것이 특장이다

(五) 매독성 림질또는 림질로인한모든 병에다른약과한가지 병용하야도독특한 효과가잇슴으로 아조깨끗하게병독을 제하고 완전한건강을어들수잇다 백발백중이다

◉이러하신분은쓰시오

▲늘 약을써도 낫지아니하고 다시재발된분 ▲급성만성림질 부인오좀소태 대하증 월경골으지못한데하혈▲ 요도,방광염,관절염 (고환염)(산중)자궁내막염,나팔관염,란소염,요도협착남녀냉병,림독성으로된모든중세

◉약갑 완고악성용십오원만성중증용구원보통용오원 지방송료선금이면 십오전대금인환삼십오전될수잇스면 선금으로주문하시오 일각이라도 저체마시고 곳 쓰시오추하고 독한 병욕, 전멸합시다

책임조제니어떠한책임이든지집니다

일각의지체는 십년의후회!!

절대신용잇는신성당전문약을지금곳쓰시고건강한행복을누리시오

약가	
완고악성에	십오원
만성에특제	구원
보통에	오원
경증급성에	삼원
송료 선금	십오전
대금 인환	삼십오전

병이좀심하면 십오원짜리를쓰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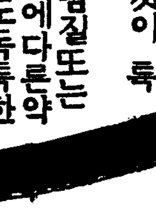
各道支社長大募集

大特典附規定書郵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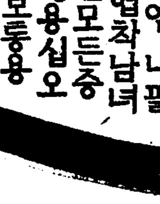
漢藥도具備

漢藥은朝鮮서神聖堂이 제일싸다

치질엔 엥구루가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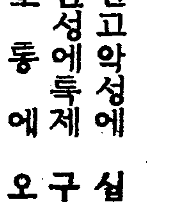


속병 체증엔 겡오ㅣ가제일



해소 기침엔 에치세ㅣ가제일

폐병 NAOPER 나오페ㅣ가제일



보양을 KAIZER 젊어지는단약 가이자ㅣ가제일

매독 PROTUR 푸로투ㄹ가제일

매독은 선천후천 두가지로선조 유전또는 전염으로발생하는 이 세상제일무서운 지독한 병인데

효력최극 상구감안 나고병독을박멸한다

資本金百萬圓朝鮮서第一큰藥業會社

京城西大門停留場前 서대문제일큰벽돌집

ケンオー 겡오ㅣ本舖總發賣元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電話光化門 長三三四番·三四九九番·一〇七七番

振替口座京城四九五〇番

家庭

假性近視 가성근시라는건 봄에만히생기는것

돗수안경함부로쓰시다가는큰일
다른안질도주의합시다

봄에는 특별히 눈ㅅ병이 만흔것은 벌서 말슴드렷습니다. 그야 봄에는 몬지가 만코 더구나 사람모힌곳에 가기도 쉬움으로 자연 더러운손으로 눈을 부비기도 하고 날르쥬을 석근 몬지가 눈에 드러가기도하야도 라홈이나 결막염가튼 안질이 생기기도하고 또는 그외의 돌림눈ㅅ병에 걸리고 할때더러 눈다래끼도 만히 납니다.

돌림눈은 도라홈이나 결막염가튼 병균으로 되는것이 아니고 단순히 더러운 손이나 손수건으로 눈을닥거나 화장할때 화장품이날러 드러간다든지 해서 눈시울에잇는 마이봄선에 화농균(化膿菌)이 드러가서생기나는것입니다.

이눈ㅅ병에 걸리면 웬만한건 눈꼽이나 조곰끼고 그러저럭 낫지마는 심한것은 대단해서 눈에 살이 나온다던지 눈이 적어진다던지 쌍거풀이 외겹풀로 된다던지 외겹풀이 쌍거풀로된다던지 여러가지로 눈의 미를 빼앗는것입니다. 그러므로 돌림눈이라고해서 마음노코 잇슬수는 업습니다.

눈을 늘 잘거두자면 바깥에 출입하고나서던지 자기전후에 냉수나 엷게탄 붕산수에 눈을씨처야하고 손수건이나 손을 늘 깨끗이 씨처두어야 하는것은 물론이올시다.

그런데 결막염이나 도라홈가튼 어려운병은 곳의사의 치료를 바더야겟지만 돌림눈쯤은 집에서 잘만해도 낫습니다.

따스한 물에다 소금을 약간 타가지고 그것을 약솜에 무처서 눈을씨츠면 대단히 효력이 잇습니다.

그다음 봄철에 제일만흔것은 근시(近視)인데 처음 근시가 되려고 하는것을 하고 또는 가성근시(假性近視)라는것이 잇는데 이것은상당한때까지 시험공부를 열심히하는학생에게 흔합니다.

말하자면 공연히 눈이흐리고 정신이 똑똑지안는경우엔 그것이 초기근시든지그러치안흐면 거짓말 근시인것입니다.

이거짓말근시는 얼마동안 눈을 쉬게하면 제절로 낫는데 이것을 정말근시라고 패니 일축서둘러 안경을쓴다든지하면 그담엔 정말근시가 되고맙니다.

그러므로 눈이 흐리할때 처음에 이것이 정말것인지 거짓말것인지 의사의 확실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파히 심하지안커든 얼마동안 안경을 마치지말고 기달러보심이 조흡니다.

피곤한다리를 풀게하는찜질

먼길을 걸어서 다리가 몹씨 압흘때—더구나 그이튼날 또걸어야하는 사람은 여간 큰걱정이 안됩니다.

여기에 압흔다리를 씻잘 곳치는 방법을 말슴드리겟습니다 명반이란는 우리가 보통 백반이라고하는게 잇지안습니까. 이것을 물에다 좀여가지고 그물로 다리를 무릅아래로 끌고로 밟러노흐면 이상스럽게도아푼 다리가 싹 낫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케해도 낫지안을 경우엔 명반물로 찜질을하고하룻밤 편히 쉬면 아주 이튼날아츰엔 다리가 시원해집니다.

소-다로 손톱을닥급시요

소-다는 빵을 굽는데 밀가루에너허 부푸러오르게하는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로 손톱을 닥그면 손톱이 엡버집니다. 이약은 갑이 대단히 싸서 십전어치만 사면 편만습니다.

어듸외출할때 이가루를 부드러운 헝겊에 무처가지고 손톱을 닥근다음 마른 수건으로다 시한번 문지르면 아주 바짝바짝해지고 입버집니다.

갑비싼 다른 약품등을 쓸필요가업습니다.

스테이풀·파이버에는 드라이클리-닝이대기

특별한비누로빠라야조타

스테이플 파이버(人造綿)를 섯거서 짜는 법령이 발표된후로는 모든 모직물과 면직물에 이 스테이풀 파이버-를 섯거짜게되엿습니다.

그러면 이런 옷감이 나오는데 따라 제일 어려운것은 빨내입니다.

이때까지는 양복이나 그밧게 헐은한 옷감으로는 대개 세탁소에 맛겨 소위 『드라이 클리닝』이란는것을햇는데 이것은옷을 그냥 집어너치안코 휘발유로 때를 빼는것임으로 습기를 주지안엇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러케만 세탁해가지고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스테이풀·파이버-섞에 든때는 휘발유로는 빠지지안코 아무래도 물에다 빠러야하는까닭입니다. 그러면 이러케 까다로운 혼직물(混織物)빨래법을자서히 아러두지안흐면 갑슬버리기쉽우니 주의하서야합니다.

첫째 우리가 알아두셔야할것은 물에다 집어너키를 실허하는것은 드러가면 약해지고 즐어들기 때문입니다. 너키만하면 주러드는까닭입니다. 스테이풀파이버-도 물에 드러가면 약해지고 즐어듭니다.

이러한감은 옷을 지키전에 몬저 물을 살짝 풀어노핫다가 대리면 즐어들것은 쳐다 즐어들기때문에 옷을 지어노흔 다음에 그다지 뒤틀리지 안습니다.

스테이플 파이버-의 혼직물은 보통 비누로 빨아서는 못씀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빨어야하는냐가 문제가 안입니까.

염려마시요 여기에 적당한비누가 생겻습니다. 즉 무엇인고 하니 『고급 알콜의硫酸 에스테르의 鹽類』이라는것인데이것을 보통 부르기를 『모노겐』이라든지 『신드렛쓰』라고합니다. 보통 약방에서를 파니 사다쓰서시요.

이약을 물 바게쓰에 세수숫갈을 풀어서 거기에 빨래를 한이삼일동안 담거두엇다가 빨면깨긋이 빨림니다.

그런데 이러케해도 안때가 덜 젓대가잇스면 다시 비누를 약간 석거서 주물너 빨면 됩니다.

빨때에는 세수수건에나 무명헝겁에 차가지고 가만히 눌너짜야하고 말닐때에는 아조약하게 마르기전에 작고 손질해서 반반하게 만들어야합니다.

대렴질할때는 역시 직접대면 헝겁이 번들번들해서 못쓰니 헝겁을 한칩 펴어노코 대리서야 합니다.

그러면 이 스테이플을 파이버-는 다른 모든 인조섬유와 마찬가지로 물에드러가면 힘이 업슴으로 빨내는 물에 오래당거두지말고 얼는해야됩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에 빨거나 더구나 삶아서는 절대로 안되고 따스한 물에 빨꼬이며 저것을때 되게 잡아다리거나하면 못씀니다.

어쨋든지 새로운 옷감들이나서 빨내법도 새로워젓스니 주의하시기 바람니다.

모자하나때문에 궁끼가드러보여

모자

그러나 세탁을말정히해봅시요 헌것이새것처럼됩니다

봄철이되여 외투(外套)를 벗고산뜻한 봄옷들을 입으면 제일눈에 드러나게 궁끼가 껴보히는것은 겨울에 쓰든 모자를 그냥 쓰는것입니다

모자에 때가 지독이 무든것은 봄가을 세탁소에 주어서 『크리닝』을해야 하지만 웬만한건 솔과『벤진』으로도 될수잇습니다 비올때 그냥 써서 모자챙가든데가 저저가지고 거기에 머리기름때가 못고 땀이내배여 겻테에 두른 리본잇는데가 얼룩이진것처럼 되여보기 실습니다

모자의 때는 대개가 손때와 땀으로되는것임으로 벤징으로 때를 빨수잇습니다 때를빼는데는몬저 안에다 두른가죽을 열어가지고 바람을쏘이고 그다음 솔로죄다 몬지를털어줍니다. 그런데 모자를 거는데는 모자 바탕에 결이 째여진대로 문질러야지 거슬러 털면 몬지가 떠러지기는커녕 되려 속으로 기어듭니다.

솔로몬지를 다던다음엔 식빵의연한데로 모자챙 더러워진데를 문지르면 조흡니다.

휘발유보다도 벤진을약솜에조곰식무처서 가만가만 문지르면 때가 잘빠집니다.

그러데 휘발유나 벤징을넘우 만히칠하면 원대는 빠젓다해도 이기름 얼룩이가 구름모양으로저서 보기실습니다.

모자댕기가 더러워진것은 그것을 떼어버리고 모자점에서 새댕기를 사다가 가러 매십시요.

지금부터시작해 젓을떼웁시요

날더워지면어려워요
이상적인대용음식물

우리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제아래나 잇서야 제절노 젓이떠러집니다.

그전에 만약 젓을떼다면 젓을두고도 아이를 굼긴다고 집안에 노인들이 야단 야단하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세살이되든지 네살이되든지 제 아래만업스면 젓을 내버려두 조호냐하면 절대로 그러치 안씁니다.

첫재 아이의 발육에 나쁘고 둘재 어머니에게도 해롭습니다. 그런데 애기네 젓을 떼는데는 그 젓떼는 시기와 젓떼는 후에 집에서 아주 공부를 잘해야지 조곰만 잘못하면 큰일이납니다.

一、젓떼는 시기

애기가 나서 만 일곱달후부터는 어머니의 젓만가지고는 애기가 잘 자랄수업습니다. 그러므로 이때부터 젓떼준비를해가지고 애기의게 다른음식을 조곰식 주지안흐면 안됩니다.

그러데 젓뗄 시기는 요즘이 아주 제철입니다. 지금은 춥도 덥도 안어서 애기가 다른음식을 먹어도 파히 어렵지 안치만 이제 차차 더워지면 안됩니다.

그리므로 아시는바와가티 여름에는 몸이 약해지고 입맛이 업셔지는데 더 먹은것이 또 소화도 잘되지안씁니다. 그러므로 어리한때 애기젓을떼여서는 아주 못씀니다. 지금 봄철에 때를 노치면 허는수업시 가을까지 기다리지 안흐면 안되는데 그리되면 애기발육이 대단히 조치못하다는것을 이저서는 안됩니다.

애기가 아주 영양부족으로 노라케 마르는 경우엔 하로바삐 의사의 진찰을 밧는수밧게업습니다.

어쨋든 돌이될때까지는 음식을 조곰식 먹도록 습관을식혀야합니다. 이때 잘못하면 애기를 일허바리는수가 만습니다. 갓난애기 사망률은 이때에 제일만흔데 대개 백사람 가운데 설흔명은 죽는다니 그아니 무섭습니까.

二、젓떼는방법

대체로 처음엔 하로 젓을너덧번식 먹이고 그담엔 팔곤장국어란든지 미음가튼것을 하로 한번쯤 멕이는데 이러케하기를 한 세주일 가량합니다.

그담엔 차차 젓을 세번 먹엿다가 두번 이러케 젓멕이는 도수를주리고 그대신 영양은만흐면서도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줍니다.

어쨋든 만 한돌이 되거들랑 빵, 게란, 생선지진것, 죽, 이러것들을 주고 젓은 하로한번이나 두번밧게 주지안허도곳습니다.

만일 애기가 설사를한다든지 감기가 들렷다든지할때에는 어린음식은 주지말고 적당히 처료하도록해야 합니다.

이러케 음식을 주는 한편조흔 비스켓, 만나, 웨파-와가튼 우유를 너코만든 과자를 주고 사과를 가라서 즙(汁)만든것이나 미깡을 짜서 물을해먹이면 대단히 조흡니다. 그러나 빠나나가튼것은 조치못합니다. 처하니까요.

三、음식물

애기들 음식만드는 법을차간 소개하겟습니다.

一、처음에 먹이는 미음 소위중탕(重湯)이라고하는것은거저 우리보통가정에서 쑤는 미음이나 별노 다를배업는데 다죽어가지고는 역시 소금으로약간간을 마추어야합니다.

二、아츰을 열달쯤되면 죽을주는데 처음엔 아조 묽게 쑤어먹이다가 차차로 되게만들어 먹여도 조흡니다.

三、국을 늘 주어야하는데 국끄리는법은 이러습니다.

할수잇는대로 푸성귀 즉 나물을 만히너허야 합니다. 감자, 넉징, 토란, 그밧게도 제철에따라서 여러가지 나물을 너코고기도 조곰너코 아주 천천히끄려서 깨끗한 헝겁에대고 짜서 거기에다 소금으로 간을 마추어 메입니다.

四、우유와 계란을 주는법은 이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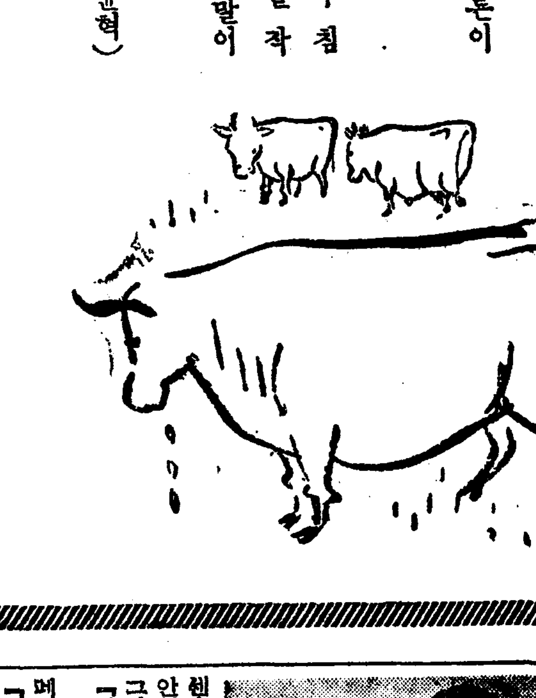
게란은 죽에다 깨트려 너허도 조코 국끄리는데 너허도조코 우유는 할수잇는대로 어머니 젓대신에 먹이면 조흡니다.

우리차지

모두어린애

『어머니』
『왜』
『소는암만커두 어룬이 안되우』
『왜』
『어떤소든지 모두 칩을흘리구 또무얼 작구 씹구잇스니 말이우』

(글쓴사람 명윤혁)



長篇小說 愚氓 【10】

朴泰遠 作
洪祐伯 畵

溫泉場小景(六)

『엇, 추어-. 이거, 눈이 와 안나?』

저편 변소에를 갓든 최가, 몸을 곤을 옹숭그리며 들어와 다. 옛날로 난 우리창을 치어다보니, 딴은, 시정업는 하늘에서 히끗히끗 떨어지는것이 눈송이가 분명하다. 최는 강씨가 벗겨노흔 사파향을 입에너코, 손을 느리여 책상우에서 화투를 집어들엇다.

『고리탑탑하게 얘기만 하면 수요? 우리, 화투나 하지.』

기생 회투 아니면, 남의 소실이라고, 두여자를 이미 감정한 최는, 차차 바탈이 서진다 그러나, 화수는 자리가 편안하지 안어,

『그럼 세분이 노시죠. 저는 그만 실례허겟습니다.』

이내 몸을 이르키려하엿스나

『아이 왜그래요? 그럼 무슨 재미람.......』

유씨가 바루 소매라도 잡을듯이 말렷고, 최는, 숫재, 그억헤손으로 화수의 어깨를 눌러안치여, 그는 쓴웃음을 우스며, 그냥 주저안지 아니치 말엇다

『자- 선 몸시다』

최가 화투는 손을 세사람아페 내여노핫다

『무어 겨보기에요?』

류씨가 물으며 한편을 화수를 겻눈질 한다

『웅 겨보이기요 허지만 그냥이야 무슨 재미...』

『그럼 내기 허죠』

『내기는 무슨 내기?』

『술내기나 허지.』

『술? 조-습니다. 그럼 저어 제각기 딴 끗수만 가지구삽 때끗 허기, 현양반, 연필허구 종이를 이리 내슈.』

화수는, 또 잠깐 망설거렷스나, 류씨 팔맛다니, 어차피 이리케 된이상에는 함께 얼려서 유쾌히 노는수박게 업다고, 마음을 떡 정하여 버리고서,

『칠띠, 오광두 보나요?』

최를 향하여 한마듸 물은말어른 류씨가 바더서,

『그럼요. 다 보죠. 칠띠, 오광, 사광, 청단, 흥단, 비약, 풍약 초약.....』

『칠띠는 비가 꼭 껴야만 허나요?』

『괜찬허요 안껴두 괜찬허』

그러나 면전지우에다 네사람의 성을 차례로 쓰고난 최가

『비안낀 칠띠를 누가 써?』

『누가 쓰긴, 우리가 쓰징. 그리구 칠띠, 이상, 다여 청주기 팔띠는 팔집. 구띠는 구십...』

아페 노힌 화투짝을 집어들며 최의 목방승애엽을 치어다보다.

『그러케 돼답니다. 좀 마음에 부족허시겟지만 인물은 무생겨두 화투 하난 명수니까...』

『자아 삼십봉산에 십오홍차리 홍 유원 말이야.』

『조런 망할놈의 돼지가 웨 고리 들어가. 에이 어저 부지런히 버슈 나중에 우리 약단 치르느라고 다 톨해놓것......요것봐아 십오매조에 초약은 으떠쿠?』

『아이 천서생 난 뭘해요? 다 들 칭엄어 갓스니......』

『애구머니, 예라 비나 짤러라......』

『웨 짤르니깐 또 나와? 비약 꽉 허는걸 그래지?』

그러나 화수는 재차례가 와도 참말 할것이 업는 모양이다. 일손에 패든 화투짝을 연해 빵조으로 만져어리며 망설거리는것을 류씨는 불안하고 초조하게 보다가

『화수씨 웨 (술)허 업세요? 그런 저어 황국을 잡못지.』

『자기편이 합두 그럼캐 구-치는 못허기요.』

『못허긴 웨 못해? 솔화(松花)루 유원이 잡수. 그래야 흥단안 으루 잡혀요. 그래야 흥단 안메요?』

류씨는 경기에 매우 열중하엿스나, 종시 그들의 성적은 불량하엿다. 최는 연해 너털우슴을 우서가며, 안주는 무엇이든지 상관 업지만, 술은 될지판이래야만 한다고 떠벌쩌 재껴리고 안젓섯다.

『앗다, 머는 무엇이 조허서 시는 모양이로군. 그래, 아모리 커나........』

그리고 화수를 돌아보며,

『어디 온천 한판 동무에 서어어 봅시다』

실갑지를 웃으며, 착착착착 소리는 솜씨가 놀아보기도 만히 놀아본 모양이다 그것을 잠깐 멀끔머니 스러기 보고잇다가 유씨는 잠담 화수가 지게될것이 마음에 불안하여,

『우리 그러지 말구, 편짜구헙시다』

『아무러컨는......그럼 남잔 남자끼리, 여잔 여자끼리?』

『그럼, 무슨 재미야? 남자여자 한명씩 갈러야전』

『그럼, 그럭허든지. 하여튼지류선생이 나허고야 한때끌만한 솜께니 어서 화수씨허구 짝허슈. 그대신에 한번 단단히골려주어야지』

『그럼 나는 최서생허구 한편이 되나요?』

별로 말이업든 강씨가 자기

잔주름느러짐을막어 아츰마다빗갈힌柔肌를길러주는國産最高의强力한榮養크림

ウテナ化粧料本舖 株式會社 久保政吉商店

お肌がカサ〳〵に荒れてはゐませんか?

潤澤과彈力이업서지지나안엇습니까?

不自然に諸く肌理が粗くありませんか?

그 것은、겨울동안살결이萎縮되고榮養이不足해서、皮膚가不健康한狀態에빠저잇기때문입니다 봄철은살결이第一어여삐지는時節인故로아츰저녁의洗顔後와就寢前에는반드시ウテナコールド로약간맛사지를해주십시요 强力한榮養素가살결의深部에까지滲透해서皮脂의分泌機能을活潑히해서잔주름과살결거츰을解消하야팽팽하게彈力을增進해서어여뿌고、潤氣잇고빗갈힌柔肌를날마다기루어갑니다

ウテナコールドクリーム (花印) 우데나콜드크림

●就寢前의맛사-지에!!
●살결을젊게하는데......
●濃化粧下에......

★國産最高의榮養크림!!

●洗顔入浴後에
●化粧下에
●여드름·부룸·살거칠豫防에
●면도하신뒤에

快適한收斂作用으로脂肪의分泌를調整하고化粧밀림을막어서健康한若肌를기루는

ウテナ化粧水는 薔薇水를基調로하고特殊한 美容成分이配合해두엇는故로脂肪의分泌를調整해서곱고、맷그럽게、깨끗하고、때빠진、若肌기루어줍니다

ウテナ化粧水 우데나

補血强壯

造血아웃호르몬

ブルトーゼ 부루도-제

各番國大學 病院常備藥

ブルトーゼ
アルゼンブルトーゼ
ヨードブルトーゼ
キナブルトーゼ
コダイブルトーゼ
コールブルトーゼ
ネオブルトーゼ錠

冊子「活動の源泉」無代進呈

B1318

株式會社 藤澤友吉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東京市日本橋區本町

學藝

一身上眞理와「모랄」

—「自己」의省察과「槪念」의主體化—

(1) 金南天

科學的槪念이 갓는 合理的核心이란 그것이 實在와 一致하는가 아닌가의 如何에依하야 決定된다。世界의認識이나 探究의過程에서 眞理的必然性을 갓는것을 合理的이라불르고 그러치못한것을 不合理的이라고 불러 우리는 그것을 槪念이나 範疇에서 眞理아닌領域에로 永遠히 驅逐해버린다。그러므로 理論的인槪念이나 論理的範疇가 合理的이냐 아니냐 하는問題는、實驗과 實證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實踐에依하야 證明되고 判斷된다。아니 이러한 人類의悠久한 實踐을通하야 그成果로 어든것이 合理的核心을 갓고잇는다는것이닌 科學的槪念이다。

그러나 내가『道德의文學的把握』이라는拙稿에서 到達한바에 依하면 文學이란 이러한 科學的槪念이 表象化되고 感覺的으로 形象化된것을 가르침에 不外하엿다 다시말하면 科學과文學의 差別同一을 省察하야、그의交涉을 究明하고 그의機能을 따라서 結果 該短文이 어든바는 科學的槪念과 論理的範疇에 依하야 具體的으로分析된 眞理를 一身上의『아스펙트』를 거처서 再提出한것 그러므로 이 主體化의過程을 通過하야 終局的으로 表象化된것을 가르처 文學이라부르며 同時에 이一身上角度를 지닐때에 提起되는것이『모랄』이라는데 잇섯다。結局 把握의 成果에依하면 文學에잇서서의 主體問題라든가 또는作家에잇서서의 主體的인 立場의問題란 理論的槪念이 遂行하는바 公式的機能을 引繼하야 이것이 成果로써 물려주는바 社會的眞理를具有한 思想을 文學的으로 如何히 主體化할것인가의 問題이엇다。

그러므로『모랄』에對한 硏究는 創作方法과 世界觀의 論議가達成한듯 만드한 哲學(理論科學)과文學과의 交涉이나 連絡을 一層科學的으로 省察하는 結果를 나흘뿐아니라 어떠한作家 具體的으로든 나가든 作家가 創作過程에서 必然的으로든끼는 여러가지 空虛과 矛盾과 苦悶을 具體的으로 明白히하는 成果까지를 나흘런지도 알수업다。아니게아니라 우리가 現在 가지고잇는 朔年의 作家나 詩人이 못울놓고 또는 노흘때 恒常느끼고 마음저려하고 안타까워하는것은 自己가 가젓다고생각하는 世界에 對한認識이 文學作品속에서는 死滅한 槪念의 破片으로 나가떨군다는데서 오는不安과 不滿일것이다。

리알리스트라고 불리워지는우리들이 어찌하야 아이데알리즘의侵犯을 拒否하지못하는가?世界觀의把握이 不徹底한때문인가 社會와個人과의 乖離의結果일가 그것도 잇슬것이다。그러나 問題를 좀더 文學의 本質에即하야 考察해볼 必要가잇다。

安含光氏는 이러한『겝브』를 메울려는 作家의 主體的努力은文學以前의問題이라고 말한다。다시말하면 主體의分裂을 超克하기爲한 文學的實踐은 不必要하다고 말한다。그러나 問題를文學以前으로 돌려버린다고하여도 決코 當面한問題가 解決될것은 아니다。이곳에는 文學以前과文學以後의 機械的分離와 生活的實踐과 文學的實踐의 二元的인 切斷의 思想이 남긴흔적이다。三個의 作品을쓰는것으로 主體의 分裂이나 客觀과의矛盾이 解決되리라고 생각하는것은 넘우도 現實을 에띄게보는것이라고 安氏는 말한다。至當한말이다。그러나 文學은 實在反映의 一樣式이엿다。作家가 現實的으로는한 사람의 人間일진대 그리고 그가 現實과 어떠한意味에서든지 싸우고 生活하고 잇을때에 文學이 그것을 反映하는것은이 또한 當然하지안흘런가。그러므로 한두개의 作品을쓰는것으로 主體의分裂이 解決된다는것이아니라 저건 만권 主體解決을 한 作家의生活上努力이 作品우에 反映된것에 不過하다。生活과 實踐가 서로 맛부닥지다는眞理的으로 이러한것까지를 包含하야 말함은아니엇든가。

其一、作家의 主體解決의 努力을 文學이 反映한다고、그것을 文學의 邪道라한다면、人間改造의 文學은 氏等에 依하야 否定되히 拒否될지도 알수업다。그러나 歪曲된人間性을 改造하는 事業을 繼續하면서、市民社會의 反應의 人間이나 情況을 擔當한다는것은 全然 無意味하다。넘센스나 이른바 通俗文學이 이러한 限度에서다。그러나 眞實한文學은 언제나、어떠한 情況이 어떠한人間性을 歪曲되게 맨드는가、또는 如何한 性格的典型이 情況의 改造를 爲하야 努力하면서 自己의性格을 變遷하고잇는가를 省察하는 가운데서 그自體를 成立시켯다。(繼續)

科學者와社會生活

安東赫

最近朝鮮社會의 自然科學에對한認識은 急速히 高度化되엿다 東亞情勢의 轉換에따라서 半島의地位가 高揚되고 民衆의 生活과 產業이 科學의 貧困을痛感하엿다。學術의 振興 發明의 獎勵는 全體的 輿論化에 到達하여 科學關係 志望學生의 激增 私立專門學校의創設 民間硏究機關의 計畫等 其具體化의域에이르렀다 順調로 進行하면 今後數年中에 朝鮮內에도 科學硏究에關한 形式的條件은 保有할수잇슬것이다。金錢으로 할수잇는設備는 官民各方面에서 어는程度까지 解決될것이다 또優秀한科學志願兵도 多數出現될것이며 科學者의 地位도 日增向上할것이다。

그러나科學振興의 根本的問題는 物質的要備外에 硏究精神의 高調를要하는것을 忘却하여서는 안된다 自然科學이라하면 곳物質現象의硏究—完全한設備 硏究者의獨自한自由生活을 一般社會와 科學人이 다ー가티 必要한것으로 認定하나 此點으로從의特殊性이아니요 어느事業이나 다ー共通된것으로 늘새로운 着想과 考察을要하며 또이것을 實現化하는方法을 反復하는 硏究者로서는 다른事業에比하야 더욱解剖的高調와 不拔의忍耐를要하는것이다 偉大한文學家나 藝術家에比하야 史上에빗나고잇는 科學者의 大部分이 普通想像하는 諸葛孔明가튼 淸秀端麗한 神仙的天才가아니오 非常히 肉體的으로도『에너ー지ー』한분이만흔것은 卽모든忍耐를 克服할수잇는 底力의必要를 證明하는것이다

科學硏究가 世間一般諸事業과 如何한差異가有하나하면 이것은 純然한 理想的이라는點을 爲先指摘할수잇슬것이다 藝術方面에 잇서서도 此理想的이라는點은類似하나 科學探求는 一層理性的으로 다른複雜한 人間性을 떠난 立場에서合理的인 唯一의길을 發見하려하는 努力임에 特徵이잇다 따러서 여기從事하는 硏究者의態度도 恒常理想主義의 終始할수잇는것이다。理想과 現實의 多大한懸隔에 直面하야 此를調和에焦心하는 다른事業에比하야 理想主義的態度로 一貫할수잇는것은 科學者의 幸福인同時에 社會가 科學探求者에 對한 最大의保護는 此心境의 擁護를 警戒하고 其精神을 確保시키도록 適當한措置를 하여잇다 發明、發見等 科學的飛躍은 天才파如히 天啓나 偶然한機會에 自然히 獲得하는것이아니오 充分한準備와 考慮下에 目的을到達함에可能한 不退轉의 合理的苦惱中에서 生成되는것이다 有名한『알키메데스』의入浴中에比重發見가든것도 表面的으로보면 偶然의이나 不絕의硏究精神의 持續中에서 其生活全體가 實驗과合致된 結果가아닐까?

科學硏究者의 必要한素質은持久와冷靜이다 科學者는 世俗과는 特異한 習慣行動을 取하는 一種의 怪物로 생각하고 怪짜가學者다운 學者요 堅實冷靜圓滿等은 俗人이라고 判斷하는異常한風習이 아즉도 世間에 汎濫하고잇슴은매우우수운일이다。이誤解는 通俗科學方面의 將大宣傳에 因한것으로『뉴ー톤』이 懷中時計를 鷄卵으로알고 끌는물에 삶엇다든지 前記『알키메데스』浴場에서 裸體로 市街를 疾走하엿다는것은 其一生中 特殊한 一場面으로 어느것을勿論하고 專心中 又는 放心中가끔 잇는事實에 不過하다 科學的探求其自體에는特殊性이勿論잇으나 此에從事하는硏究者에는 다른職業從事者에比하야 何等의特殊性이업는것이다 大科學者의全生涯를 檢討하여보면 例外업시圓滿한 常識的偉大한 人物이오 그가다른方面에從事하엿다하드라도 一流의政治家나 藝術家 實業家가되엿으리라고 想像할수잇는사람뿐이다 어려서부터 科學者로 위바힌 奇性 偏性的人物이아니다 往往奇怪性을 가진有名한所謂學者가 잇으나 此等學者는其奇行으로 有名할뿐이오 科學的業績은 거의보잘것이업다。

科學探求生活의 大部分은 纖細의機械的勞作과 經過途中에自覺하는 失望의連續이다。眞理를 把握하여 所謂法悅의 境地에 드러가는時間이 長久한一生에 一秒間이라도 잇는科學人은 非常한幸福이다 世間에서는 往往科學者란職業은 幸福이다。俗事와斷絕되야 全然興味中心으로 從事할수잇는것은 부럽다고 하나 如斯한環境의惡條下에 잇는사람은 勿論非常한 幸福者이다 그러나其數는 僅少하다—特殊한先天的幸福을 가지고 出生한 人間中에서 發生한 科學者 外에는 存在可能性이업는까닭에—그리고 또그는 科學者가 안되여도 亦比等한幸福을 가즐사람이다。硏究의悅惚境에 遭한一瞬間外에는 科學者亦人間에 不外하므로 其事業의性品이 理想主義의임에도 不拘하고 一切의實踐은 現實의範圍를 버서나지못하므로世間의壓力과煩雜은 硏究室의『또어』라도勿論 自由로進入할수잇다 藝術家가『아트리에』속에서 創作에專念하는時間 軍人이 第一線에서 砲火相交하고잇는時間에 家事 處語 原稿 面會等雜用이 如何한障碍가 되는가를 理解하는 사람은만타 그러나社會는科學人에對하야는 此點에對하야比較的無關心하다 一種의矛盾이아닐까? 日前本紙『고기도』欄에 科學的拜金主義의 一文은 確實히 現代所謂學究의 逃避의卑怯性을 明確히 指摘하엿스나 各論性과는 좀다르지 안흘까?大實驗裝式의 古風의 奇蹟과 發科而後進의 苦痛狀은 現代科學人에게서는 어더볼수업다。萬若 科學硏究에 專念하는時間을 一般社會에多少 割愛하라는 意味라면 이것은大段히 困難한註文으로서 學者만이 재미을드를것이 아니다。

要컨대 科學硏究의 特殊性이라는것은 現實에立脚하야 嚴格한基礎上에서 理想에依하야 推進하는데 잇다고 볼수 잇스며 此本質로부터 생각하여보면 決코 特殊性格의 人物을 要하지 안흘뿐만 아니라 普遍的 常識的圓滿한 人材를 要하는것이다。世間의好奇的對象인 奇癖的言動의 常習者、非社會的仙人色彩를 帶한人物은 科學의 本流에서隔離된 變態性格에 不過하다 더구나 꾸준한 持久的努力을 嘲笑하고 그날의氣分에따라서 天才的飛躍의夢想中에 徹夜하고或은 奇行에 度日하므로써 科學的理想의 實踐이라하면 狂妄의徒에 不過하다고斷言하고십다 自然科學者의生活은 不自然한硏究機械의 滑動이아니오 堅實한人間生活에不過하다。其對象이 物質이오 單純合理的인點에 비추여 其精神的方面을 科學人이나 一般 人士가 閑却하고 科學的建設이 巨大한 硏究所建築 設備한 實驗裝置施設 相當한 俸給支拂로 完成된다하면 이는 根本的 誤謬이다 무엇보담도 精神的緊張이 放되여 其事一한 精神的 安定을 維持하기에 自他共히 努力하여야할것이다

鄕土文化를차저서 第二義州篇 班

新舊義州變遷과 御駕의駐蹕地

黃義敦

龍興廟와沒字碑

龍興廟의 俗稱은 王堂이라하니 아마 平安道에서祠里마다 지어노코 崇拜하야오던 城隍堂에 比하야 太祖大王을 爲하는 堂王을 爲하는堂이란 意味로 王堂이라 부르는듯하다 그리고龍興廟라함은 예로부터남금을龍에다 比하야 潛龍이니 飛龍이니하얏스므로 李太祖가이러는자리곳 龍이이러난자리에 세운사당이란뜻인듯하다

그러고 그龍興廟의 創建年代는 알수업스나 예로부터 잇서오던것을 지난癸酉年(距今六年前)에 面所에서 實力하야그를一新하게 重修하얏다하는바 精灑한小形의 瓦屋으로서 本殿이三間이오 그아페三間의三門이잇고그周圍에는 石墻으로 둘너잇스며 本殿內에 高約一米의六面稜形石을 세워서 神位를 대신하얏다

그러나 그神位로 崇奉하는稜形石은 아마 古代에세운立石碑石을 神石으로 그릇알고 갓다세운것인듯하야 자세이살펴보니 희미하기는하나 文字가보이는듯하다

그러함뿐아니라 龍興廟의 兩便으로서잇는 두개의 沒字碑가잇는바 距今一百二十九年前에된 義邑誌에도『字沒不可見』이라써잇섯다 만은 或ー文字를 알어볼수가 잇슬듯한 部分에 다가 조히를 대이고 拓本 하야보니 果然 年、水、原等의몃字가 두렷이나타남으로 歡喜踴躍함을 이기지못 하야 곳 全面的 으로 拓本하야보랴고 始作하자 狂風이大作하야 엇지할수 업슴으로 後日로밀우고 도라왓섯다。만은 後日에다시 그를 完全히 拓本하야보면 무슨큰 發見이 잇슬것으로 期待하기를 마지안는바이다。그길로 그이웃에잇는 老人들을 만나 龍興廟에對한 信仰과 祈禱하는習俗을 물어보니 예前에는 春秋로安宅、生子、療病等의 祈禱가 떠만이 잇섯스나 近來에는 예수敎가 盛하고科學이 發達되므로 차차 그러한 信仰이 적어저가고또는當局에서 嚴重이 禁止함으로 듬을게잇다한다

그길로 回程하야 城內로 도라와다가 午飯을먹은後에 다시 南山에잇는古墳을 차저가게되얏섯다

許沆墓와金德雲墓

城內로부터 約五里밧게잇는許沆墓를 처음찻게되얏다 그의墓前에는 크나큰墓碑가 서잇다

그는純祖壬申(距今一二七年前)ー洪景來亂時에 義州에 有名한 義兵將으로서 金見臣과가티나아가서 連戰連勝하야 龍川、鐵山、宣川을回復하고 마츰내洪景來의 本據인 定州에서 官軍과合力하야 싸우다가 同年三月二十二日에戰歿한 忠義의 勇將이다 그의功績을 張灝이碑述한碑文을 略草하야들고墓前에서서 用意를表하얏다。

洪景來의亂에對하야 옳으나흥으나하는 議論이區區하다만은 그는確實히 李朝末期에少數의 貴族政治쏫國利民福을無視하고 少數者의幸福에만 沒頭하던 虐政에對한反抗運動이다。적어도 몃百年동안差別待遇에 悄憂을 품어오던 關西民衆의 代表的反逆兒이다。만으면그의反抗運動곳그의 革命亂이失敗에 도라가게된原因이 여러가지잇겟지만은가장重大하다할만한點이둘이잇스니 洪軍이淸川江을건너 安州를占領하고平壤으로 나오지못한것이 아이오 義州軍의 勇將 許沆金見臣이 뒤에서 후려하야 定州의軍勢를 외롭게하던것 그한아이다 그러면 이亂을 平定한 功臣中에 許沆의勳錄이얼마나 重大하얏슴을 알만하도다。

里見勝藏獨立展……東京洋畵壇의 權威인 氏의 新作展은 今月十五日부터 十九日까지 五日間 三越五層『갈리리』에서 開催

▲寫眞(右側、女子의 肖像、錦山碧湖)外三十餘點出品

移民部落見聞記 (八)

李泰俊

우리는 한 五十分쯤에 小合驛이라는 驛에서 나리엿다。驛에는 驛員 몇사람이 서잇가 못다리를 모조리 긁엇 搜査를하고 한사람씩 내여보낸다。驛舍는 모다 벽돌인데 門窓은 下半이 鐵板으로 되여 有事時에 防禦를 嚴重하게 防禦할수잇게 되엿다。驛을 나서니 驛前旅舍가 무어채、土民의 오막사리 酒店이 한채、그리고는 길이 따로 잇스나 마나한 벌판이다。

『곡물 먹을 사람은 여기서 먹구덜 갑시다』

하고 酒店으로 드러가 술도 한잔하고 나오는 사람도잇는 눈치다。가는길엔 먹을 물도 변변치 안흔모양이다。봇다리를 낀사람、진사람、아이를 업은 그어머니、큰 고무신을 첫되첩첩 끌면서 어머니의 치마끄리에서 떠러지지 안는 少女、입쌀을 고처가지고 全財產의 봇다리를 걸머진 그男便、나는 그봇다리에 매여달린 바가지쭉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뒤를 따라것는다。

조선사람은 얼마나 저 바가지와 함께 살고지럿는지? 바가지로 생을 푸고 바가지로 살을 일고、바가지로 닥단을 치고 흉년의 청젝받도 저 바가지로 먹는다。

어대로 가나 저들은 박덩쿨여킨 집웅밋치 그리운것이요 흉보와 놀부가 바타는 이야기는 永久한 저들의 永遠한 寓話요 漢譯이요 즐거운것이다。박이 여므러들제 엇지 서리가 와버리는 이北녁나라에선 故鄕에서 달고온 저 액쪽의 바가지 한이 저들에겐 祖上 적기볼이요 故土를 생각하는 唯一의 앨범일것이다 거러도 거러도 길이나 展望이나 變化가 엄다。벽도 흙이요 집웅도 흙인 土民들의 집들이 한울씩 나타낫다가는 지리하게도 안 사라진뿐、도야지를 數十마리 몰고 나오는사람 家族을실다섯匹에 끌리는수레에、태우고 新京구경을가는듯한사람하나를 만낫을뿐、새도 까치도 별로 볼수가업다。

『어디서 떠나오십니까?』

『기장서 옵니다』

바가지 달린봇다리 主人의대답이다。『기장』이란 磐石、東寮어디 어름이라한다。전에 이웃사람이 먼저와 사는데 農土는 흔하니 드러오라 해서차저오는것이라한다。

西北편만 向하고 한十五里쯤 거르니 물이도 보히지 안는누ー런개울둑이 어물장을 이끌며 흘러간다。이 개울둑이 上流에선 地帶가 좀 놉기때문에우리 移民들이 거기서 봇둑을내여가지고 논물을 푸것이라 한다。거러안을 흙행이 하나 엇기때문에 길우에 뻐더버리고 안저서 한참씩 쉬여가지고 다시 한十五里 거르니 여기서 부러 논이 나오기 시작한다 논이라야 베그루가 여간 섯기게 박히지 안햇다 正租植도 아니요 논둑들도 아이들이 물작난으로 막아놋던것 처럼 물러안젓다。오래간 만에 힌빨래던 울타리가 보힌다。노ー란 잇집붕빙 잇집나까리 들이 아득한 地平線우에 드러난다 보히는 것만 오르는 느리지게 거러서야 그 마을아페 이르른다 봇도랑이나 온다。그有名한 萬寶山 事件을 일으킨 보스도랑이라한다。

물마른 보스도랑에는 여라문 살된 조선옷少女가 갓나니를 업고서서 우리를 멀ー거니 처다본다。금잔듸 언덕도。금모새강변도 이少女에게는 神話와가튼 것일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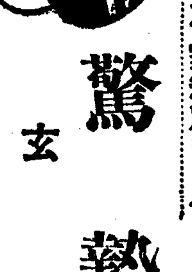
地塘……(其二)

바닥넓비는 十三尺、우의넓비는 廿二尺의 金長廿餘里의 大幹水路이다。이곳移動者苦力들도 만히 부렷지만 大體로 우리移民들의 血汗으로 完成된 大規模의 工事엿다。

漢詩募集

題 梨花
押 香
限 四月二十五日

本報當選作家短篇리레一



鷺鷥 (七)

玄德 作 崔根培 畵

잇는날 흉서는 거름을 내고 오는길인지 뵈바수거리를진 경춘이를 동구밧 언덕너머서 맛낫다。

『경춘이 어디 갓다오나』

하고 깍근머리에 수건을 쓴 먼데서부터 겸겸 고무신을 신은 발까지 한번 흘터보다는

『이리좀 오게』

하고 의미업시 가든길을 엽으로 꺽거 오목골로 향한 밧두덕길을 멋거름 가다는 불시에 몸을 도리켜 그는 닷자곳자로 상대의 면상을 찹엇다。

『이놈아』

하고 어마지두에 눈짜가 허연 얼굴을 잠시 노리다가

『오목골 노마네집논에 됨은니가 내지』

『되좀 냇기를 죄될거잇수。오양간은 넘구 주재할수가 업서좀 내기문』

『그럼 어째 자기논엔 아니내고 남의논에 먼저 내는거여 그리구 지금이 어디 됨 낼때여 해토두 되기전에』

『그래서 길가는사람 면상을잡는거유 이거 노코말허시다』

흉서는 상기가된 붉은얼굴을 잡아 나려다만본다。

『면상치지안흔 팔뚝허우 이거 노코말허자니까』

흉서는 솔며시 손을 푸러다 경춘이는 멱살를 펴로 물러스도니 지개를 버서노코 고처섯다。

『노마아버진 장벙으로 알우、얼굴사람은 얼계구、난 그래두 인정쓰느라구 됨 좀내준건데、그게 그러케 잘못된일유』

그리고 두려운 아래입설을내민 얼굴이 분명 넌 무슨 판계로 남의일에 홍야항야 하는거냐고 빈정대는 표엿다。흉서는 기가막힌듯 바라만본다。그야 할말이 업는것이 아니다。

『네놈의 경우뱃속을 모르는줄아니 유리를 바고드려다보듯환하다』 하고십되 그가 노마아버지 자신이 아닌이상 이말은경춘이가 자기를 향해할수도잇는 말이엿다 다만 자기도 그만못하지안케 집죽 업는여기는 눈으로 노리다가

『넌 인정을 쓰는것인지 몰라도 글루해서 알는사람이 속울상하게되니 허는말이다 어쩌께로 기청이 더해 이놈아』

그리고 한마디 더 다지엿다

『일후두 그논에 됨을 내다든 손올 댓단 가만안둘테니 그런줄아러』

그러나 흉서는 잇든날 자기도 그 오목골논에 거름을 져내다 두집째 풀고 도라오는길에 동뇝어 언덕에서 질꾼들을 굼고잇는 동네노인엽을 지내다가 그는 못지안는말에 먼저 설명을하엿다 (그야 보다는 자기자신에게 하는 설명이엿지만)

『노마아범은 곰작을못하구 누엇구 노마는 철부지구 논에 거름낼때가 되여두 푸래기 한올이고 꺼러낼 사람이 잇서얍죠 하 딱해 오목골에 뒴한짐 내주고 오는길입니다』

사실 잇다 노마아버지에게도 『오늘 자네집논에 뒴한짐냇네』하고 바른대로 알일생각으로 시작하엿다 흉서는 아주 태연했다。노인도 첫말에 아러드럿스면 그러리라고 고개를 끗덕이고 말엇을인데 그는 귀가절벽이엿다。

『뭔』

하고 귀뿌리에 손을 오그려대드니

『자네네집논에범서 됨을냇어』

하고 동문서답을 하는데는그대로잇을수 업어 또한번 옹성을 놉여『노、마、아범、은』하고 가을 느리여 외이자 처음말할때와는 의미까지 달러저엿째 변명을 하는거만 갓어저어색햇다。그런데 노인은 또 만청으로

『자네가 노마네 집논에 됨을 내다 건왜』

하고 이해노흔이란듯이 똑바두 처다본다。흉서는 또한번

『그러게 아니와요』

하고 처음부터 되푸리할때는 근처에잇든 동네아이들도 구경이 나섯입고 하나 둘 모여들고 그는 더욱어색해저 낫을붉히게좀 난처햇다。그리고 꼿꼿내 변명을하기위한 어색한짓이 되고마러 처음엔 서너집뒴 작정이든 됨을 두집만내고 말럿다

아버지 어느길로 가우!

愛兒를健康케 引導하는길은어느것인가 父母되시는분이여 아직아모것도 모르는애기들을爲하야아모쪼록당신들의 正當한知識에依하야 不斷한引導의손을펼처주십시요

兒童의健康을分別하는要点다섯가지

무엇이던지 나뿐일은 始初에 根絕시키는것이 第一입니다 病도亦是 마찬가지 特히 兒童은病의 始初가 번지는것도 速하고 뿌리박는것도 瞬間입니다 그러면 어떠한것이 病의 始初인가 그것을 分別하는 다섯가지點………

1 食慾은減하지안습니까

大體로兒童은 食慾이旺盛하는것입니다 그럼에도不拘하고밥을잘안먹으려고하고 食物을 가려먹게 되는것等은 普通이안입니다。胃腸의 힘이弱하야 榮養不良이되고 或은 結核性疾患이 움트는證據입니다。

2 便通에異狀은업습니까

泄瀉는 元來、消化不良을 말하는것인데 兒童에도 比較的만흔便秘에 注意해주십시요 便秘癖이잇는兒童은 急性慢性의 胃腸疾患에도 걸리기쉽고 頭腦의活動도 나빠지고 發育도阻害됩니다。

3 睡眠은잘됩니까

밤中에 갑자기소스라처이러난다던지 二三歲까지는 꿈을꾸고운다던지 하는것은 相當히 神經이 傷해진證據입니다 特히新入學한 兒童은環境의 變化로말미아마 그러한 念慮가一層만사오니 注意해주십시요

4 體重은增加함니까

發育途上에 잇는兒童은 體重이 恒常增加해가는것인대 그것이停止한다던가 減少한다던지하는것은 胃腸의 虛弱이나 榮養의 缺陷으로 相當히 重大한障碍가잇는것으로생각하지안흐면안됩니다

5 元氣가업는일은업습니까

潑剌한 元氣는 또한兒童의 特徵입니다。어쩐지元氣가업고 運動하는것을실혀하는것은 病은안일지라도 健康이低下한 證據입니다 特히 乳兒等은 元氣如何로 病의 輕重이判斷됩니다。

以上의諸點에對하야

子供の綜合強壯劑

「錠劑わかもと」는 이러케作用한다!

數種의 藥用微生物로된 複合菌劑「錠劑わかもと」는 以上에말한바와가튼 兒童의 健康上에對하야 어느것에나 有効하게活動합니다 그것은 一二의 成分에限定된 榮養劑、強壯劑、비타민劑、칼슘劑、單純酵母劑等과 그趣意를달리하는바입니다

食慾이增加합니다 『錠劑わかもと』에는 胃腸의活動을 強케하고 消化를 旺盛케하는 비타민B複合體와 諸種의酵素가非常히 強力한우에 『食慾素』라고까지하는 食慾增進의 効果잇는 호르몬性物質을 含有해잇는故로 胃腸의 衰弱뿐아니라 結核病의 食慾不振에도 잘奏効합니다

便通이整調됩니다 獨特한『細胞原形質賦活作用』에 依하야 胃腸의組織이健康케되는故로消化吸收가 正當히되고 泄瀉便도낫고 便秘癖도 自然업서집니다

잘자게됩니다 『錠劑わかもと』에는 腦神經의 榮養이되는 燐酸化合物其他가豐富히잇는故로 神經의疲勞를 恢復하는 効果가 顯著하고 胃腸機能의 活潑、便通의順調와 아울러 睡眠이 잘되게됩니다

體重이늡니다 또한 『錠劑わかもと』에는人間에 必要한各種의 榮養素、特히 兒童의 發育促進하는 아미노酸等도 含有해잇는故로 榮養素의偏頗를防止하고 體重의 增加가 一層 促進됩니다

元氣가납니다 以上과如히 胃腸은 強하게되고 榮養은 增進하야 全般的으로 健康이向上하는 故로 兒童의天性인 元氣가潑剌케니다

大懸賞

全國藥店에서 わかもと 一圓六十錢 一個 사실때마다

一等부터二十等까지반드시當選

「家庭經濟心得繪本」「日本躍進繪本」「仇討孝助漫畫繪本」 어느것이나 四六判美麗色刷中 一冊呈上합니다。

右의繪本에 [illegible] 回答用紙가 잇사오니 [illegible] 正解者에 抽籤으로下記의 大景品을 [illegible]

一等	寫眞機又は高級自轉車	三〇
二等	電氣時計又は置時計	六〇
三等	輕便ミシン、旅行鞄、兵古帶の中一種	九〇
四等	夏座布團仕立上り又はスプーンセット 五枚	一二〇
五等	硝子コップセット	一五〇
六等	双眼鏡	一八〇
七等	絹張洋傘	二〇〇
八等	旅行用品セット	二二〇

以下十九等(八九五〇名)의게 十等景品으로서 上記本舖의 [illegible] 進呈

世界へ輸出

藥價低廉 一日僅か數錢
三百錠 一圓六十錢
千錠入 五圓

東京市芝公園
株式會社 わかもと本舖 榮養と育兒の會
[illegible]

애기들은

胃腸榮養 複合ヘーフェ菌劑

錠劑 わかもと (와가모도)

로 튼튼히됩니다

貯水池와發電所의 用地買收工作進捗

"江界水電"三幹部가咸南道當局을訪問協議

長津江界間專用鐵道用地도

【咸南支社發】강계수전회사(江界水電)간부의길전영삼랑(吉田英三郞)등기간부삼명은 신업도당국을방문하고 지사기타관계각주요사항에대하야 용지매수기타에관하야 수요협의를거듭하얏는데 그수전회사에서는 벌서 지난일부터 장진저수지(長津貯水池)발전소 용지통매수에 착수하고잇다고한다 이매수가끗나는대로곳장 진저수지 언제공사에 착수할터인데 느저도 명년경우기까지는 완성할계획이라고한다 이수전공사는 기부한비의가리 장진군에 댐을만들고 함남북일대에배치서 개소의 저수지를 계획이라고하는데 장진언제에사용될세멘트만도이십만톤의 방대한것이며 세멘트는 회사자체로 제조할계획도잇다고한다 그리고 이공사 보급상서공사재료의운반을위하야 장진으로부터 강계(江界)에이르는 철도도 부설할계획으로 벌서 이달부터 그철도예정지매수에 착수키로 되엿다고한다

이철도는 물론 공사재료를운반하는 전용선(專用線)이나 전용완성후에도 영업선은 그냥존치할터로 오지대 연락기관으로그 의의가 극히 중대하다고한다

溫陽平澤、靈仁仁州 兩道路開通

【牙山】기보=충남아산군온천리로부터 경기도평택(平澤)여의를통하는도로와 아산군영인면(靈仁面)에서 인주면(仁州面)으로 통하는도로는 원래도로가 불완전한관계로 해마다해빙기가 되면 자연히파괴되어 통행불능이든바 금년에도 지난일월경부터 전파가되여 통행이전연불통되여 일반생산자들이 만흔손해를 보아오든바 지난일일부터 일반화물자동차와 자동차가전파가되여 통행된다고한다

魚類菜蔬는下落 騰貴一路의平壤物價

―比前年指數七、六의昂騰―

【平南支社發】국가총동원법 증세안(增稅案)등이 발하여진결과 에오르대로 다오른줄 알엇든 물가상승(上昇)의 경향은 가속도적으로 계속하여 평양상공회의소의 조사에의하면 이달물가지수(指數)는『一四七、七』로전월보다도 자그만치七、六의앙등이다 어류(魚類)소채(蔬菜)가다소하락하엿스나 군수공업(軍需工業)의비약으로 철물(鐵物)연료(燃料)가 계속앙등한것은 물론특히 생활필수품의의료(衣類) 식료품(食料品)과 건축재료(建築材料)는 더욱놉핫스니 의식주(衣食住)모든가 소비대중으로부터 우에로 날러올나가는세음이다 물품에잇서서 뿐아니라 이발료(理髮料)를 한번하려고 하여도심지어 목욕(沐浴)을 한번가려도 일전오전을고나서야 하게 되여잇다

금년 봄들어서부터 사월 십오일현재 남녀의 출가(出家) 건수는 모두 십사、오건에 달한다는바 자녀를둔 부모네들은 주의를요할바라고한다

全南簡易水組 三個所에新設

【全南支社發】전남도에서는 소화십이년도부터 도내수리조합증설십오개년계속사업으로 매년수삼개의간이(簡易)수리조합을 증설하고잇는바 금년도내에 역시 삼개소의수리조합을 신설할터이라는데 그총공비는 약육만원가량으로그중사만이천원은국고보조이라하며 신설될 장소와 면적은다음과갓다

◆務安郡望雲面內 望雲組合(二二〇町步)

◆羅州郡錦川面內 錦川組合(一九〇町步)

◆珍島郡義新面內 左屋組合(八〇町步)

犯罪都市奉天 三個月間集計

【奉天】국제도시봉천을 자랑하고잇는 대봉천의 금년일월부터 삼월까지의 삼개월간 시내발생 범죄 세종류 일천이만치 다수거주하고잇는 대봉천 경찰서관내에서만 발생한 범죄 통계를 보면 파연 이 대봉천은 범죄도시의 탈을 면치못하고 잇는바 살인 오건 상해 백건 강도 십오건 절도 팔백건등인데 강도 절도로인한 피해액은 매월 일만오천원으로부터 삼만원내외라는놉흔 수자를 보이고잇다 그리고 월별로본 범죄건수는 다음파가다

(月別)	一	二	三
殺人罪	二	一	二
傷害罪	二	一	三
竊盜罪	二六二	二〇六	三三二
强盜罪	一五	六	一
賭博罪	一一	四	一五
計	二九二	二一八	三五三

百濟博物館 地鎭祭擧行

【公州】백제고도(百濟古都)인 공주(公州)에서는 백제박물관(百濟博物館)건설문제가 다년숙제가 되어 봉찬회(奉贊會)를 조직하고 건설에힘쓰고잇든바 도당국의 보조를 바다 건축비 칠천오백원의 예산으로 박물관기지를 공산성(公山城)부근 승전(勝田)사천여평을매수하며 기초공사에 착수하고 지난십일오전십시경에 신축지지제(地鎭祭)를 거행하엿다한다

自動車끼리衝突 運轉手重傷入院

【海州】지난십일오후여섯시삼십분 사리원읍리(沙里院邑里)와서리(西里)의경계 신작로에서 조선자동차운전수 장석규(張錫奎)조종의 황해자동차삼천삼십오호 승합차와 시내해림상회(海林商會)의 소속운전수 양흥기(梁興基)(二一)조종의 황해백삼십호 소형자동차가 서로충돌하엿는데전기양운전수는 이로인하여 오른편다리에중상을입어 방금사리원

鎭南浦府屠獸場 新築基地를買收

【鎭南浦】진남포부의 도수장(屠獸場)은 현재당지 지산리(芝山里)에 잇는데 협착하고 년도 예산에 이전신축비를계상하여 부지를물색중이든바 부지는부내 대두리(大頭里)로 매수키로결정 일반의 대망하든 도수장은 신축공사에착수할모양이라고한다

官民有志合同으로 期成會組織活動

宿望의井邑農校昇格

【井邑】전북 정읍농업학교(井邑農業學校)의 갑종농업학교(甲種)昇格문제는 정읍관민일반의 다년숙안으로 내려오든바 금년에새로 실시된 개정교육령을 계기로하야 당국자의 맹렬한활동의결과 도당국의내락(內諾)과 보조(補助)를 엇게되엿슴으로 십오일 오후이시부터 군회의실에서 관민유지 삼십여명이 모여 그구체적토의를 한결과 승격기성회를 조직하고 민간측의 부담액의승격운동의 적극화와 당국에의 승격운동 철저를 결의하고 그임원을 선거하엿다는데 그씨명은 다음과갓다

會長 山本重一 副會長 朴明奎 朴錫孝 八木國一 顧問 評議員 宋 畝三 梁公允 平田 洪烈 李潤燮 殷熙相 加藤砂田 鄭宗寶 金容進 李 東善 大塚 李東 姜 甲秀 木村 深田 各面長 群山日報支社長 全北日報支社長 書記 道內各郡守 農學校長 赤木 田 井深 朴 殷成 河 殷 熊本 小川 梁川 三山 李六元 朴 田 稅務署長

元山輸入商組서 强硬決議文發送

粟關稅差額問題後聞

【元山】기보=만주속수입관세의 인하로 남만주 수출상인파 조선내 수입상인파의사이에 그 인하된 차액(差額)에 대한 취득문제로 서로분쟁이 되엿다함은 기보한바어니와 이에대하야 전조선 만주속(粟)수입상의 삼분지이나 차지하고잇는 원산의 곡물수입상과 중매상인들은 협동보조를 취하는일방 이문제가 직접 대중경제와 상관이에 미치는바 영향이 크다하여 그쥐금을 실충이하고잇는데 벌서남만주각지 수출상측에대하야 사월일일전 기성계약분에 대한 인하세액의 취득을 수출상측이 요구함은 상업도덕으로나 법리적으로나 부당한일이라 하는동시 그해결을 도모한결과 이미 사평가(四平街) 요양(遼陽)등지 수출상측에서는 원산측의 요망을 용인하여 인하관세차액을 매주(買主)측의 취득으로 양보하엿스나 그러나 원산피의상쥐인이가장만코 더욱이나 삼월중 선물매매(先物賣買)계약의대부분을 점유하고잇는신경(新京) 수출상측에서는 상금도록 그반분식 취득을하자는 절충안을제시 고집하고잇서 그해결의서광이암담한바잇다고한다

그리하야 원산곡물수입상조합(元山穀物輸入商組合)에서는 여기에대한 대책을 강구하는동시 그태도를 결정하기위하야 얼마전 동빈들상에 총조합총회를 소집하고 다음파가튼 위원을선정하는일방 여좌한 결의문을작성하야 산지수출상측에 지난십사일에 각각발송하여 매주(買主)측의 반성을 촉하기도하엿다고한다

委員

理事 金相鉉 李錫烈 韓冰 閔 李濟鉉

決議書

一、四月一日以前賣買契約에對하야서 稅率引下에 依한差額은 契約價額으로부터 差引한것

一、今後産地와의賣買契約은 모두 保稅(輸入稅賣主持)의賣買로 할것

一、本決議에違反한者는 組合員相互間의取引을停止할것

昭和十三年四月十四日

元山穀物輸入商組合

勞賃平均率은 六錢五厘引上

支那事變前에比하야

전기와가티 물까는 계속앙등하고잇고 또 일방에잇서서、특수경기의와중에 거액의투기적이익을 본사람、금광에 일확천금을한사람도잇서 료정(料亭)등의 시한 화류가(花柳街)는 더욱더 번화하고 기생의화대도 여전증가하고잇는 반면에 수입이 한푼도 나어지못하엿고 또나어질여지도업는 샐라리―맨파 중소상공업의 물까앙등의 고통속에서 울리는소리업는 신음성은 봄날을 우울케한다

그리고 일반노동자의 수입은 어떠한가하면 평안남도의 조사에의하면 도내 이십만칠백명의 직공 광부 일반노동자의 평균일급은 현재구십육전이리로 지나사변전인 작년봄의 팔십구전칠리보다 겨우 육전오리의 인상으로 이삼할이상오른 물까와 착호기에는 그들의시 상당히괴롭움을 참지안흘수업을모양이다

江陵에出奔者激增

【江陵】강릉경찰서 관내에서만

自轉車窃盜犯 鎭南浦署에被逮

【鎭南浦】진남포경찰서사법계형사대는 지난십이일아침을기하여

二百萬圓大會社 群山에進出準備

重工業의工場을設置

【群山】공업도시건설(工業都市建設)에 기초된 화제―군산에도 충차 자본금 이백만원으로 중공업(重工業)회사를 세우고자 방금모방면의 알선으로 계획진행중인바 동회사의공장은 조선(造船) 철공(鐵工)원동기(原動機)자동차(自動車)농구(農具)광산용구(鑛山用具)의 제조판매를 주요목적으로하는바 방금 모방면으로부터 착착준비를진행하야 불원실현을 보리라한다

牛車와自動車衝突

【海州】지난십일오전령시십분경 황해도무도군(無道郡)벽성군(碧城郡) 십팔번을 태운 승합자동차는 해주군금산면신장리(海州郡錦山面新庄里) 대동사(大洞寺)부근을지나다가 그동리김순길(金淳吉)(三一)이가 끌고오든우차와 충돌하엿는데 김순길은 가슴등에 이주일이상 치료할중상을입어 중앙의원(中央醫院)에 입원치료중으로 해주서보안계에서는지상을 조사중이라한다

地方人事

◇會田淸氏(全北警察部長)…… 上任

◇金大羽氏……

◇田畑新氏……

◇上野政雄氏……

玄海灘密航夜話

憧憬의航海엿만 乘船하니生地獄

한難關지나면또難關 ③

전회에말한것은 밀항뿌로커들이 밀항자를 밀항선에태울때까지의 수단방법을 대략말한것이다 이뿌로커들이 밀항자들에게밧는 신원보증료 신원수수료의 분배상황을보면 삼분배의 방식을 취한다는것이니 즉 지방에 출장하여 모집해오는자는 그여비를제하고 남는돈으로써 부산의본거뿌로커와 밀항선선장파세사람이 분배를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뿌로커들의 약속에따라 분배방법을달리하는자들도잇다 즉 지방에모집하러 다니는뿌로커들이야 그비용이얼마가들엇든 불고하고 부산뿌로커들은 한사람에 사원식혹은오원식을밧고 발동선선장은삼원내지사원식을 밧는것도잇다 이것은 가장합리적방법이라하야 최근에는 그방법을취하고잇는편인데 출장뿌로커들이 그밀항비를바더서 분배하기까지의책임을지아한다 출장뿌로커는 부산뿌로커들에게 한사람에 칠팔원식작정하여넘기면 부산뿌로커들은 발동선선장에게 또다시삼사원식주고 넘기는 형식이니 그들의 사무분담상 각각책임만다하면 그만이나 뿌로커들의 도덕으로보아서는 그러케 되지안는모양인지밀항선이 부산을떠나기까지는 서로 서로의 조력을 앗기지안는것이다

그리고 모집해온 밀항자를숨기어 두는방법에잇서서는 전에 말한바의 좌식방법도 잇거니와 경찰의 밟길이 밋지못하는 부산부외의 유지집이나 혹은 촌집에다감추어두고 수일을 기다리다가 밤이되면 약속한장소에 모이게된다

◇

그들 밀항자가 맛는이가튼 나과 설음은 현해탄만 건너게되면 그까짓고생쯤은 참을수도 잇다고 막연히생각을 하다가그들뿌로커들에게 속아 목적을이루지못한 순간에는 새삼스러히 울분과 탄식이 터저나오게 된『잘잇거라! 잘가시요!』하다고、고향을 떠나올때의 생각을하면 노자를 구하지 못하여 헌두덕이 옷벌이라도 모조리 팔고 또 전당을잡혀만드러 근근히준비를 다하엿든것이 현해탄도채못건너고 남은것은 고생과 여비손해뿐이라 그대로 다시 고향을찻는다는것은 참아발길이 돌지안는다는것이다 그들방에서 감금되어잇든일! 남의 눈을 피해단이면서 그조라는 부산구경도 못하고 밤이슬을 마저가며 굴속에 새여드는밤빗아래서 고향을생각하든일! 밀항선을탓스니 이제는 목적의현해탄을 건너간다고 비록발동선 밋바닥에서 고생을할지언정 못을잇우게된것을 이어린갈대의생각은 그들로하여금 저주의눈물을자어내인다

◇

육상(陸上)의 뿌로커들의 그계책과 활동은전기한바와 갓거니와 이제바다의 뿌로커들은어떠한책략으로 이들을 롱락하는가? 이도한 독자의궁금히여길바일것이다

바다의 뿌로커라함은 발동선선장을비롯한 기관장과 화부들이니 이들은거개가 일본내지에다 선적(船籍)을둔 어선(漁船)면게자로써 배는대략삼사십돈밧게되지안는발동선들이다

그들중에는 남의발동선을 달세(月貰)로 어더서 운반업또는 어선으로 사용하는것을 그보다 수입상으로보아 유리하다는 재산으로 그들은 기관장과 협의하여 그리의 분배를 하기로하고 부산의 뿌로커들과 연락을 취하야 육상뿌로커들이 넘기는 밀항자를 인수하여 그가러 밀항을 시기는것이다 어밀항자를 실고 전번에말한바와가티 부산항내를 밤새도록 도라다니다가 목도(牧島)뒤해안에풀며 이것이 일본내지라하고 그냥 도망질을하거나 정당하게현해탄을 저어간다 할지라도 불과 삼사십돈밧게 되지안는 발동선으로서 그거슨 현해탄횡절을 허처가므로 발동선밋바닥에서 집짝(荷)가티 함부로 내던짐을밧는 그들은 거츤파도에견디지못하여 배멀미란기보다 차라리 반죽엄의 고행을하면서도 해내노은 오물은 배바닥에 흘러내려 창자가 석는듯한 이야말로 생지옥이다 그러나 이를어 어가티 생지옥판에서 그가튼고생을 하는자업스며 당장 뛰여내릴생각이날줄거친 바다복판에서야 어어할수잇스랴 점점험하고 구비치는물결속으로만 저어가는 밀항선은 삼사십명의 생명을 실코도 아모런 약준비도 도한불순비도업서 그저 주머니를 불리기에만급급한 비인간적인 그들의죄상이야말로 언어도단이다

◇

간신히 현해탄의 험한물구비를 넘고 일본내지에 다달엇슬때도 그곳 경찰의눈을 피한다는 의미에서 그대로 배바닥에서 고생을하다가 발동이되여풀거되며 멀미에 기동도잘하지못하는몸을 가지고 그곳편언의는에 딸가려곰하여 다시산기、숨속에 숨는다는 그야말로 험한고비는 또 닥처오게되는것이다 (계속)

(사진은 밀항자를운송하는발동선)

慶南支社李鎬柱記

長篇小說 林巨正 【88】

洪碧初 作

金能超 畵

소굴 (五十六)

꺽정이가 들어서니 달은사람도 다 따라서 들어섯다 소흥이가 종종걸음을 처서 쫏차오는데 손에 작그마한 보퉁이를 들어서 꺽정이는 무엇을 주러 오는줄만 짐작하고 소흥이가 아페와서 선뒤에

『그것이 무엇인가』

하고 물으니 소흥이는 보퉁이를 내들어 보이면서

『이거요? 도망군이 봇짐이에요』

하고 상긋 우섯다

『도망군이 봇짐이라니?』

『나도 선다님따러서 도망할라고 나왓세요』

『허허 이사람 보게』

『아무리 작패중이라도 여더케 하란 말슴한마듸 업시 가신다는것이요 그러케 언정업는 선다님을 쫏차오는 내가 실업는년인줄은지 몰오지요』

『집은 대체 여더케하구 나완』

『여기 섯지말고 가면서 이야기하십시다』

『그보퉁이는 이리 주게』

『선다님이 들고가실래요』

『속에든게 무어시게 보기버럼때 맛직해』

『되지안흔 맵쌀이지만 내버리고오기가 앗갑길래 싸가지고 왓지요』

꺽정이가 선봉들어를 돌아보며

『이거 들구가잣』

하고 소흥이게서 바든보퉁이를 내주엇다 달은사람들을 번서와가티 압세우고 꺽정이는 소흥이와 둘이 가치보러 가는데 손봉을 잡고 걸리다시피하얏다

『자네만사람들에게 말해주와쓰나』

『그러머니요 나중 포청에들 불러가서 말해구까지 얼러주고 왓는데요』

『무어라구 말하엿난』

『공연히 꿩대수설 하지말고 몰으러로 내빼도리지요 잡상다들 어무것도 물오거든어요 오늘밤 동화를 격고도 선다님이 누구신지 아직들 몰으는걸이요』

『자네가 포청에 잡혀가서 조런집 바칠것이 걱정나서 나를 따라오네그려』

『그랫판 아니에요』

『또 무어시 걱정나는가』

『선다님께 의심을 바들지 몰라서요』

일행보다 얼마 뒤떠러진 꺽정이와 소흥이가 어때 하랑교(河浪橋)다리목을 지나는데 순라군(巡邏軍)들이 건너편 골목에서 내닷아서 다리로 쫏차건너오며

『가지를 말구 게 섯거라』

하고 소리를 질렀다 꺽정이가 소흥이더러 압서간 일행을 따라가라고 말하고 다리우에올라서서 순라군들이 갓가이오기를 기다리고잇다가

『내가 순라잡는사람이 아니다』

하고 호령하니 순라군들은 꺽정이의 우아래를 훌터보고 갓지안케녀기는듯 코방구들을 뀌엿다

『너이들 순경 고만 돌구 좌우편포청에 가서 임꺽정이가 오간수루 가드라구 말하여해란』

꺽정이가 순라군들의 뭉치든 바른팔을 냥손으로 일시에붓들고서

『너는 우편으루 가구』

하고 바른손의 순라군을 동댕이치고

『너는 좌편으루 가거라』

하고 왼손의 순라군을 동댕이첫다 철석、철석 순라군들이 개천둑에 떨어진뒤 꺽정이는 천변에와서 압서가지안코 기다려고섯는 소흥이를 끌고 부지런히 일행을 쫏차왓다 오간수다리께를 와서 일행 여섯사람이 한데 모여서 개천빠닥으로 나려가랴고할제 오간수에서 따수보는 군사 둘이 지창들을 질질 끌고 쫏차오는데 하나는 노닥다리인듯 거름이 지척지척하고 또하나는 포떡젓이듯 거칠을 콜콜콜하야 한참 바빠게 쫏차오는 품이 여느사람의것눈으로만 못하얏다 꺽정이가 리봉와이를 돌아보며

『그화살 두엇다 무엇하나 저놈들 혼돈것이나 내게』

하고 말하야 리봉와이는 활을꼬고 군사를 오는편으로 따주나갓다

『이놈들 살 바더란』

리봉와이가 활을 나리키고 치키고 두번 쏘아서 한번으 서오는 노닥다리의 발목을 마치고 또 한번은 뒤떠러오는병정의 벙거지 꼭대기를 꾀엇다 발목을마진 노닥다리는 다시 팔할것업고 벙거지만마진 벙거지 도망도주하고 그대로 주저 안젓다

花につられ 春陽軒本店 大阪

各社レコード 蓄音器 卸問屋 大阪市東區谷町西 小林蓄音器製作所 電話東九五六(四)

食料玩具 小物玩具 卸問屋 筑紫屋商店 大阪市東區

製本機械材料製造直賣 牧瀨商店大阪本店 新聞業者には親切に説明した案內書進呈

人より安く仕入て儲るには 東京 大阪 名古屋 京都 神戶 橫濱の各問屋元 大大都市 百貨 製造問屋問家名鑑

利は元にあり選べ仕入先 百貨仕入案內社 大阪市西區南上通四丁目 振替大阪七六五一九番

パン饅頭燒 神崎商會製作所 大阪市浪速區

機付吹ラッカー 手動式 動力不要 操作簡易 完全安價 大東商會 大阪市住吉區

愈々シーズンを目前に!! 努力社カレンダー部 大募集!

らい病 レプラ菌死滅法

世界的 强壯劑 네오톤 效果本位

이時期에健康을恢復하라!

今年가티毒威,肺炎,氣管支炎等으로 一般家庭에서 크게恐慌을느낀때는 드물엇습니다。前日毒威으로因하여 身體가매우衰弱해진분,肺炎,氣管支炎等으로因하여 아주恢復이完全치못한분,或은病弱體,腺病質의兒童,産前産後의婦人,冬寒으로因하여氣力이衰退된분等은 換節期인 只今에 健康을恢復치못하고 그대로衰弱이 오래끌게되면 恢復의時機를놋칠뿐만아니라 봄철의流行病에對한 抵抗力을가추지못하게됩니다。

그러므로 只今에適當한補藥으로써 身體의衰弱을迅速히恢復하는同時에 全身의抵抗力을强化하지안흐면아니됩니다。

네오톤(NEOTONE)은 醫師가推奬하는 補血强壯劑로서 本劑를服用하면 營養을充實이하고 胃腸과 呼吸器를튼튼이하며 全身의組織細胞를强化하고 食慾을增進하며 體重을增加하며 身體의抵抗力을 强化하고 氣力을旺盛케하므로 病弱體 健康體를不問하고 萬物이 生長하는 이季節에服用하면 더욱 그效驗을보게됩니다。

適應症 肺結核,神經衰弱,萎黃病,食血症,腺病質,食慾不振,肋膜炎,産前産後,急慢性氣管支加答兒,一般虛弱,營養障碍,心臟疾患,病後恢復期

(本劑를服用하실때는먼저醫師에게問議하여주십시오)

(全國有名藥房販賣)

包裝 小瓶 中罐 大罐

發賣元 柳韓洋行 京城、上海、大連

長期戰下貯蓄奬勵 ②

大戰中英國의實例

一、[illegible] 世界大戰中의 [illegible] 大戰中에 가장成功한것은 英國이엇다. 世界大戰中英國은 巨額의 戰費를 [illegible] 計上을 예기지 안햇는데 當方政府와 國民의代表가如何히 戰費支出에 協力하엿는지 또 一般國民이 戰時經濟가 무엇인지를 自覺하고 一步를進하야 消費의 節約을 行하야 官民이 다 銃後의 守備를 完全히하엿는지를 보기爲하야 以下 其槪要를 살펴보기로하자

×

英國에서는 開戰當初는 그偉[illegible]

劃期的物價制度 二重價格制採用

【大阪】吉野商相은 物價政策으로서 重要商品에對하야서는 價格統制와 配給統制를 倂行하고 日常生活必需品에도 適宜히 小賣價格統制를 强化할方針인데 또 資源關係로 不要不急消費制限의 意味로서 重要한個個의 單一商品마다 二重價格制度를(公定할) 方針을가지고 이것을具體化시켜 我國物價制度에對하야 劃期的措置를하리라한다

그리케되면 國際價格에「링크」한 現在의 一般市價와는 따로 韓國的民需價格이 新設될것이라한다

重石暴騰 品不足으로

朝鮮産重石鑛은 標準物(七十五%)에(드)五千圓에 不變이엇스나 品마다 品不足傾向이 去益顯著케되어 必需側의 買進으로 漸高되어 昨今五千三四百圓唱이다 重石增産은 總督府에서도 相當히注力할方針인데 內地製鋼界의 現狀으로보아 相當한 暴騰을招來하리라한다

洋灰値上申請 一袋에十錢式

內地의 洋灰値上은 五月一日부터 一袋十錢引上을 決定하얏는데 朝鮮에서는 이에 追隨코저『세멘트』聯合會朝鮮支部에서는 總督府에 對하야 一袋十錢値上(現在價一圓四錢)을 申請中이다 總督府서 右申請대로 認可할지는 疑問이나 大體는 內地程度의 値上으로되리라한다

을 補充하려는것으로 外國有價證券의 保持者又는 外國銀行預金者等에 對해서도 申告命令을

事變國債好賣行

第三回支那事變國債는 十五日賣出과同時에 二十五圓券은賣時間에 賣切되엇다京城郵便局의賣出總額은 八萬四千三百二十五圓으로 賣出初日午後까지에 大萬五百二十五圓의 賣上이되고 어 [illegible]二年度分調査에 關해서는 公布實施와 同時에報告命令을 發하야 大體五月十日까지에 集成할터이다

發할수잇도록한것이다 그래서十[illegible]

協同油脂拂込徵收

朝鮮協同油脂에서는 三十日定時總會에서 當期決算案 監查役改選外에 第三回拂込徵收에 關한 議案을附議할터이데 適當한 時期에 一株十二圓五十錢을 徵收할려하는바 同社는 現在資本五百萬圓半額拂込이다한다

硫安一萬砘移出入
十五日부터實施七月末까지에 內外地會社間에協定

【東京電話同盟】內地 朝鮮의 硫安販賣會社는 別個로 統制되고 잇는바 地理的과 運輸關係上兩者間의 相互連絡을圖할 必要가 잇스므로 十五日 工業俱樂部에서 內地側 硫安販賣會社 朝鮮側 朝鮮窒素肥料專務 渡瀨又配人 朝鮮總督府尾崎技師、朝鮮窒素肥料專務 會合、內鮮間 硫安配給調整方法에 對하야 協議한結果 相互로 七月末까지의 本肥料年度中에 約一萬砘의 硫安을 移出入하기로 協定成立 即日實施하기로 決定하엿다

輸入抑制·輸出振興 節約과貯畜이必要

水田財務局長歸任談

經濟政策은國際爲替維持에集中

資金調整法은所期目的의達成

五億二千萬圓을넘는 膨大豫算을 通過시키고저 昨年十一月以來 五個月에 亘하야 渡東中이던 水田財務局長은 十五日午後 歸任하야 十六日에如左히 말하엿다

一切의 經濟政策中心은 國際爲替의維持에 集中되엇스므로 輸入의抑制 輸出의振興은 꼭 遂行되어야한다 物資需給의 適合도 時局에 必要한 生産力의擴充에 目標를두고잇스므로 이點으로는 朝鮮의役割은 重要하다 物價騰貴의 抑制는 一層必要케 되엇는데 이것을 爲하야서는 需要에 關係잇는 物資를줄수잇는대로 節約하는同時에 貯蓄도 時局에依하야 增收된 附加價格만아니라 一般人도 將兵의 勞苦와 時局의困難을 認識하고 國債消化에協力하야주기를바란다 政府의宣傳만으로는 到底히 所期의目的을達할수업다 精神的總動員이 第一이다 膨大豫算의實行에 對하야서는 一層濫費를 省略하고 될수잇는대로 不要額을만히하지 안으면안되는데 來年度豫算의 編成方針은아직決定되지안엇다 稅制改革도行하여야겟는데 知事會議와 監督局長會議의意見을 充分히듯고研究하겟고 中央地方의 負擔의均衡은 內務局과도 共同히 해결하려한다 資金調整法의 效果가 지나친다는말이잇는모양이나 必要한産業에對한 金融이窮屈해지지안토록하는것이 本法의目的임으로 金融이緩漫해진다면 所期의目的을 達한것이라겟다

金剛特種鑛山創總

日本高周波系 金剛特殊鑛山株式會社(資本金百萬圓 二分一拂込)는 來四月二十七日 大阪海上빌딩本社에서 開催하기로 되엇다 社長에內定된 高橋省三氏는 二十日 東京으로부터 歸京하야城津에 直行하엿다가 二十六日歸京할豫定이다

國際收支調査規則 朝鮮서도實施

一志二斤의 爲替國策市場堅持를爲하야 大藏省에서는 貿易外國收支의詳細한 調査를 行하기로되어 國際收支調査規則을 省令으로 制定하야 四月九日부터 實施하엿는데 總督府에서도 그 必要를 認定하고 臨時資金調整法第十六條에基한 命令으로써 四月十六日付로 府令으로써 國際收支調査規則을 公布하고 即日施行하기로되엇다그런데本規則은 貿易上의 國際收支는 貿易統計에 依하야比較的正確히 示現되고잇섯스나 貿易外收支에 關해서는 調査가자못 不充分하엿든것

鑛山奬勵金交付 申請은四月末日限

總督府에서는 昭和十三年度에 前年의 四倍 百六十萬圓의 豫算을 計上하야 探鑛·選鑛·設備·製鍊機의 新設等에對하여 各히 그奬勵金을 交附하기로 되엇는데 奬勵金交付申請은 四月末까지로 마감을하기로 하고 總督府當局에서는未申請者는 그前에速히하기를바란다고한다

『叺』增産 根本對策協議

昨秋부터繼續하야 米肥界에異常한衝動을 與하는 叺不足問題에 關係當局은 그對策樹立에苦心中인데 農林局으로서는 十六日午前九時부터 總督府第二會議室에 各道係官을招集하고 總督府側으로부터 農務、米穀兩課關係官이出席하야 今後의對策樹立에 關하야 協議會를開催하얏다 會議는 今日一日로 終了할豫定인데 叺은穀用、肥料用에 모다三月末의 應急增産奬勵에依하야 一時的으로 相當數量을 확보하엿스나 今後의 分은 根本的再檢討를 加할必要가 잇서서 今回의 協議會에서 一時的增産策뿐만아니라 將來에亘한 根本對策을 討議하리라한다

殖銀의産金資金 百五十萬圓認可

殖銀取扱의 産金資金은 認可된것 十餘口百五十萬圓으로 十五日부터實際貸出을 行할터인데 殖銀關係는 大槪小口가만타고한다

朝鐵線買收와 今後經營方針 重大한分岐點

朝鮮鐵道에서는 私鐵買收其他에依하야 明年度以降에 期待되는 主要經營路線은 買收의運命에잇고 그經營基調는 分岐點에 立케되엿다 即
一、咸南線=新興鐵道에서 賣渡가成立되엿다
一、咸北線=傍系로 新設된 鮮開拓殖鐵道에 讓渡
에 어어서 京釜線關係로 忠北線 慶北線은 모두 一兩年中에 買收될運命이요 또 黃海線도 京義輸送力增大로 가까운將來에 買收가 豫定되는事情에잇다 從하야 朝鮮鐵道로서는 어떤買收問題後에 如何한經營方針을 取할지 重大問題로서 目下會社首腦部에서 愼重研究中인데
一、全朝鮮乘合自動車事業의 一元的資本統制
一、事業에의 持株會社로서의投資進出
等이 研究되는바 朝鮮에 投資될 資金인만큼 此際極力能率을 發揮할것이라한다

水産罐詰開罐研究會

總督府 水産課內에잇는 水産製品檢査所에서는 水産製品을奬[illegible]

經濟界消息

○東拓臨時總會延期=東拓의定款改正에 伴한 臨時總會는本月末 開催豫定이엇스나 諸種의事情으로 來月上旬에 延期되엇다 副總裁의 政府任命은總會前後發令될터인데目下는依然渡邊一氏가有力하다고

○朝鮮運輸同盟支店長會議=朝鮮運輸同盟支店長會議는 十六日午後一時부터 府民館에서 開催되고 定款一部變更及事業決算報告를하고 明十七日同所에서 開催되는 定時總會에 對한 準備에 對하야 協議하엿다

○東拓에參與理事制=今回東拓法의 改正에依하야 同時에 參與理事制를 設置하게되엇는데 理事三名을 減員하고 參與 二名을 新任키로되엇고 株主中에서銓衡하리라고

○朝鮮農會臨時總會=朝鮮農會에서는 五月上旬 臨時總會를開催하고 豫算共濟開始에伴한 特別會計 [illegible]

(米)……日米關係憂慮로 下放하엿다가 將頭死說로 反騰한 것이 다시日蘇關係惡化로 今

農具講習會

朝鮮農會에서는 農業用具의 改良을目的하야 總督府 農具試驗場과共同히 本年度부터 開始키로된 事業을 本事業은 農業機械化 研究會의 事業을 實施하고 相當數의 製造業 의 相當數量을 한 講習을 하는 左記의 計劃에依하야 農具講習會를 開催

一、日時 自五月十二日 至五月十四日 三日間
一、會場 京畿道種苗場
一、講習科目及講師
農林省農事試驗場技師 二瓶貞一
總督府技師 立山[illegible]
總督府農事試驗場技手 江崎[illegible]
囑託 今村[illegible]

上旬荷動

鐵道局의 四月上旬荷動狀況은 前旬에 比하야 米、粟、大豆、雜穀、木炭『세멘트』等以外의 各品目은 모다減少하엿다 本旬의 總噸數 三十七萬七千七百六十噸으로 前年同期에 比하야 十萬四千百七十三噸의 增加이엇다

外交關係憂慮

昨夜의 米國 再發表는 今朝의 反落으로 賣方도 氣勢가 挫折된모양이라 或은今朝의 低落을 外務省聲明으로 日蘇關係에 [illegible]

今後動向微妙

市勢自體의 動向으로보면 京東新百五十四圓五의 低價가 一時的中間底는 될지언정 大底가 아닌것만은 거의 市場人의 一致見解로 低價자 언제든지 다시 더잇스리라 한것은 모두 認定하나 民高가 前이나 低價가 前 [illegible]

各市場打診

株式 反賣人氣로再弛 賣込反動示現後

前週崩落後 漸次追擊賣警戒가 되때에 週初突然 蔣介石爆死說等을 傳하야 東新中心의 反撥을 보이고 이어서 鐘紡도 例의增資問題로 民新價를 보이엇다 百五十四圓五까지 賣叩된 東京東新은百五十九圓丁을 回復하고 二百六十圓五까지低落되던 鐘紡도 二百七十圓三의 高價를보엿스나 金融緩慢以外에는 이러타할 新材가업고 政局의 微妙한 動向은 依然 警戒되며 長期戰의 諸困難等으로해서 人氣는 相當히 軟弱하고 取

組는 少口買方의 投壺으로 因果玉도 減少되고 또 代玉도 漸減되엇다고는 하나 大口買方은 依然 持久戰을 繼續하는等 玉整理도 一段落된모양이나 아직因果玉을 一掃할만한 徹底한 整理는 되지안엇슴으로 民高들보이고는 못 後退軟化하는 光景인

期米 人氣漸次로沈滯 期近中心의 漸弛

物價抑制要一喝과함께 依然下放한 市勢도正米事情이 海外로 주春하고 四國의諸物價實로 폭때에 無謀하게 賣買를 根據되어 하야 다 시下放한 곳에서 數三日의 釘着

生絲 需給基調良化로 人氣多少好轉!

海外市場의 低落 觀人氣로 賣叩된後 價位觀의 採合어든 市勢는 追擊賣警戒로다시 採合어든 市勢는 海外市場의 少康狀態와 需給基調의 良化等에 刺戟되고 근 一派의 派動買도 잇서서 市勢는 期近中心으로 轉하엿스나 一般으로는 이反動勢를 不自然視하는데다가 高價에는 實需賣物이 積在하야 容易히 高價도 不許하는 光景인데 米國의不況退治工作이 얼마나 奏效할는지 今後의 海外景氣가 注目處이나 季節的苦境도 잇스므로 早速한 活躍도 期待難이니 結局一高一低의 保合圈

人絹 環境情勢가在右 一高一低의浮動

人絹도 目前으로는 材料들업고 오직 環境 情勢如何에따라 動揺케되니 生絲絹絲의 反撥에依한 環境高로 人絹에도 買氣는엇다이나 그러타고 積極買進할 根據도업스므로

綿絲 米棉反撥好感코 過賣反動을示現

綿絲에 對한 人氣는散과 海外事情의 不透는 依然으로 綿絲는 漸弱商勢를보여 先限의 二百十圓臺維持도 或은 困難할것이 아닌가하는 憂慮조차 잇엇는바이니엇는데 米大統領의 不況退治敎書와함께 米棉이 大往來에 不過할것이란觀도不無하다

顯著하얏시도이으로 反撥當前의 大反動을示現할는지도모른다고한다

(金城生)

國債伸惱 【東京電話同盟】

多少買人氣가되어 少高된後 다시買物薄이되어 市勢는 伸惱商

阪仁稍漸擴鞘

一時는 地方側과 當地『마바』側의熱心買로 阪地의低落을 不拘하고 阪仁의鞘二百四十丁內外의縮鞘를 示하기까지의 頑强을示하더니 一昨日부터 金太及 東京店을本營으로한 金菜의大賣物이 突然現出하고 此賣物賣『마바』의急退却을보이자 市勢는 依然軟化의形勢로 阪仁의 鞘가 二百六十餘丁으로擴大되엿다 그러데阪地의市勢가 將次如何히展開될지 注目을要할바이데 挽近內地로서의 朝鮮米買注文이 極히 稀少함을보면 內地의在米가 또한潤澤함을如實히 證明하고잇스며 反面의朝鮮은 又一層在庫의 豐富로實際壓迫을 免치못하게되엿다 農家가아무리賣惜한다할지라도 結局은 春暖期를지나 漸次農繁期에入함에따라 手放하고

期米 續軟 期近中心

前場續軟 今朝阪地先限三十四圓六十錢인 五丁反落을 傳하고 當限은 三十二圓七十九錢인 昨止同樣으로 一丁低先限은 三十二圓〇五錢인 八丁低로 受渡를 한後 阪地六十三四錢의 反落에 不拘하고 三十二圓丁을보여 漸弱勢에 投物이 敢見되어 阪地三十四圓六十六錢의 少堅에 後場을보고 三十二圓〇七錢에 止場하엿다

實勢威壓繼續

近年 各地商勢는 第三次政府米拂下 當日의 競賣 內外의 低落하기 시작하야 阪仁共히 一、二十丁의 反落을 告하엿다 此에는 一段 段獲이 잇슬것으로 認하고硬派는 짓짓 防禦하여잇스나 正米의 實勢威壓은 依然繼續하야 容易히 上伸하지못하고 今日仁川四三圓三十一圓三十錢의 反落을 告하엿슬터이며 南鮮地方의 在米가 더욱 豐富하야 當地로 出廻되는 光景을보면 春間의 實米의 威壓은 免치못할것같다 要하면 今後農家期에入하야 天候가 順調로 進行되지못하는 때는 農家의 賣惜方針이 쌓지 안홀것이나 그러나 植付順調의 謳歌를 할하는때는 農家의狼狽的 投物이 업지안니하야 未來의 豐兆로 어느程度까지의 慘落을告하

正米續落 賣行不振

京城續落 蓬萊米進出으로 賣方은 氣勢가꺽거서 겨우 白米賣買뿐이오 市中은 產地動靜의 待로 靜觀하야 湧算의 漸軟步調로 物漸增인때다 買氣가 업고 賣買量는거 人氣不旺하야 市勢又復十錢低唱이 되엇다 ㊀三等 三一、六〇 四等三一、三〇 白米 一三、〇〇

仁川軟弱 定期軟弱으로 賣方의 唱價는 一段低下하야 多少나마 三十一圓四十錢附近까지賣物이 散見되고 잇스나 精米의 物色買 內外에는 買氣不振하야 賣買는 意外로적어 仲値는 大體十錢으로부터 十五錢低이엇다 ㊀穀良三等三一、三〇 四等三一、一〇 銀坊主三等三一、五〇 四等 三一、三〇 多摩錦三等三一、九 〇 四等三一、七〇 一等白米 一三、八五 ㊀一三、七五

釜山弱含 東地超然高의外極度의 實行不振等 弱材料의 사이에끼인 現狀이라 場面은 大閑散의 推移이나 人氣는 朝來 湧算低量入하야 鈍重弱含場面이다 ㊁穀良 三等 三一、九〇 四等 三一、七〇 一等白米 一三、〇三

大邱軟調 需要地消化不良으로 買注가 杜切되어 人氣는 低迷되기쉬운때에 定期의 軟調과 一部所持側의 嫌氣的賣物이

木浦落潮 蓬萊米의 阪地進出과함께 唯一한 目標인 賣場을 失하야 此邊은 産地高에 갈린 市中有力持米側도 價位關係로 해서 折勳格되어 環境惡化로挫折되어 市勢도 十錢賣叩되고 休日을앞두엇스나 依然買氣 薄으로 閑散이엇다 ㊀銀坊主三等 三一、六〇 四等三一、三〇一等 白米 一三、〇〇

群山續調 市中은 依然正 出現하야 市勢는 十錢低로 下放하야 軟調를 보엿다 ㊀穀良三等 三一、二〇 四等三一、一〇 一等白米 一三、八〇 租高에 牽制되어 低價賣盡이나 地主의 平均賣로 垂頭의 在米 漸次增加하야 人氣는 弱材料의 挾攻으로 定期頓重과 氣弱하야 內地入荷의 杜絕로 不振하야 休日前 어나 小口必需買 除하고는 買物이 업서 市價十錢 續落되고 되엇다 ㊀銀坊主三等 三一、二五 四等三一、〇五 一等白米 一三、九〇

市場六感

(米)……日米關係憂慮로 下放하엿다가 將頭死說로 反騰한 것이 다시日蘇關係惡化로 今後 [illegible]

株式 一反落 戾賣人氣

今日의市勢(十六日)

今日財界(十六日)

[illegible]

海外經濟 (十三日)

[illegible]

銀行券 (十三日)

[illegible]

金利·手形交換

[illegible]

鰯油粕·麥粉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銀價

[illegible]

正米

[illegible]

正租

[illegible]

雜穀

[illegible]

綿絲布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朝取期米取組內容

[illegible]

京城物價(十六日)

[illegible]

株式 朝取短期 / 朝取主要取組高 / 大阪短期 / 東京短期 / 東京現株

[illegible]

期米 朝取期米 / 朝取期米賣買高 / 大阪長期 / 釜山期米 / 大邱期米 / 大阪期米取組 / 木浦期米 / 群山期米 / 東京期米 /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綿絲 / 棉花 / 人絹 / 生絲 / 砂糖

[illegible]

水銀 螢石 分析 鑛石 重石 入買 內鮮鑛業社 (稱改会商社) 京城鍾路一丁目三二 電光二〇七一番

期米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電話 六二一 三九六

期米 東益夏 仁川

株式 賣買 東亞證券 京城黃金町 案內書贈呈